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구독신청은 (416) 533·2361

韓·印 相互보완적協力 긴요

全대통령 印度 PTI通信 찬드란社長과 會見

訪印희망·간디 訪韓초청도

技術·資本제휴 合作進出 모색해야

南亞國협력 절실한때

【서울25日PTI=聯】 全斗煥 대통령은 25일 南아시아 국가들은 진보와 번영을 위해 同伴者로서의 상호이해및 협력을 증진시켜나가는것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印度 PTI통신의 N·R·찬드란사장과 가진 단독회견에서 南아시아가 세계의 어느 지역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정부는 세계 여타지역과의 전반적인 외교·경제관계에 있어서 南아시아지역에 높은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全斗煥 대통령은 25일 상오 청와대에서 印度PTI통신사의 N·R·찬드란 사장의예방을받고국내외문제에관한 소견을밝혔다.

全대통령은 인디라·간디印度首相에게 가장따뜻하고 정중한인사를 전하면서 간디수상이 적당한시기에 한국을방문해주도록 초청하는한편 자신도 기회가주어진다면 기꺼이 인도를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볼때 印度가 한국과 가장 깊은 관계를맺어온 나라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더우기 인도는 南北韓 긴장의 실상과 韓半島의 현실적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뿐아니라 非同盟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도 정당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인도의 이같은 올바른 한반도情勢觀이 한반도의 항구적평화실현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이어 한국정부와 국민은 인도가 콜롬보와 뉴델리에서 열렸던 非同盟회의에서 북한측의 비현실적 제안들을 지지하지않은 사실에 항상 고마움을 잊지않고 있다면서 한국민들은 인도에 대해 매우따뜻하고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있다고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인도와 한국과 같은 東南亞개발도상국들은 현재 강력한국가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있다고전제, 『나역시 평화를 수호하려는 비동맹국들의 노력을 존중한다』고 말하고 인도처럼 한반도의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동맹 세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고있는 국가들과의 계속적인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룩한 개발상태를감안할때 경제·기술·무역·문화및여타분야에서의 韓·印양국간의 상호보완적 협력은 양국의발전과 번영에 크게기여하게될 것이라는 것이 나의 확고한 신념』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최선을 다할생각이라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한국과 인도가 제3국에대한 양국의 합작사업진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하며 양국의 기술과 자본이 공동으로 운영되는 이같은 합작사업은 다른 개도국의 발전에 기여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제3국의 진설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韓·印양국의 협력을 창안, 증진시켜 나가는 방안도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고 지적하고 자신은 韓·印양국관계가 量과 質面에서 계속 확대될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한국이 인도로부터 보다 많은 상품을 수입할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양국간의 무역확대를 위해서는 양국의 관계관리와 경제인들간의 상호교류및 기타 여러형태의 접촉이 촉진돼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南北韓 통일문제에언급, 南北韓간의 직접대화외에 다른 대안이있을수 없다고 전제하고 …

全대통령은 비록 아시아국가들이 종교·이념·정치체제면에서 서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은 아시아국가들이 …

外國人投資규제 대폭완화

4百27개업종대상 56개업종은 全額허용

原料의약품등 3百71업종 50%허용

정부는 외국인의 對韓投資門戶를 대폭개방해나간다는 방침에따라 한국標準產業분류상 8백55개업종중 절반인 4백27개업종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이중 56개업종은 1백%까지, 나머지 3백71개업종은 50%까지 허용키로했다.

1백%투자허용업종엔 컴퓨터등 電子부품과 重化學제품, 鑛物소재材工업, 호텔, 농수산물가공, 원료의약품, 의료기기, 공작기계, 자동차부품, 遠洋漁業, 석회석개발, 연료, … 사일로시설, 종합금융, 사무기도소매등업종은 50%까지 외국인투자허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내주중 입주업종명단을 고시할 예정이다.

경제기획원이 25일 발표한 외국인투자인가 細部지침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4백개 업종중 51업종은 1백%, 2백69개업종은 50%까지 허용되며 鑛業은 68%, 도소매및 음식·숙박업은 57.5%가 투자가 개방된다.

정부는 이같은 외국인투자허용대상업종과 투자비율제한완화조치로 合作등 외국인투자가 확대되고 국내기업에도 대외경쟁력강화등의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

泰무역사절단 訪韓

商品수출擴大 위해

【방콕24日路透=聯】 … 태국의 무역사절단이 … 25일 서울로 떠난다고 태국상무성이 24일 밝혔다.

이스라엘·팔게릴라 休戰

美·유엔仲裁로 非文書 政治的 타결

【예루살렘·베이루트·워싱턴24日AP·UPI=聯】 지난 2주동안 치열한 攻防戰을 벌여 6백명의 이스라엘인과 4백50명이상의 아랍인의 생명을 앗아간 이스라엘—레바논국경분쟁이 미국과 유엔의 중재노력으로 24일 극적으로 종식됐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이날잠정휴전성립은 「문서화된것이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인 타협의 소산」인데 현재 로널드·레이건美대통령의 특사로 왕복외교를 벌이고있는 필립·하비브中東특사가 예루살렘에서 메나헴·베긴수상과 두번째회담을 마친 뒤 『이스라엘—레바논국경지대에서의 모든 적대적군사행동이 종식됐다』고 선언한것과 때를같이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양측이 이를 뒷받침하여 휴전이 성립된 것이다.

하비브특사는 『나는 81년7월24일(현지시간하오1시30분(한국시간하오8시30분) 레이건 대통령에게 레바논—이스라엘국경지대에서의 모든군사행동이 종식될것임을 보고했다』고 밝혔으며 곧이어 베긴수상은 금주중3번째 긴급각의를 소집, 이스라엘정부는 레이건대통령특사필립·하비브씨의 성명을보증한다고 이스라엘정부입장을 간략하게 밝혔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도 하비브특사와 베긴수상의 성명이있은지 1시간만에 야세르·아라파트의장의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이스라엘이 미국의 휴전중재안을 수락할경우 PLO도 對이스라엘 전투행위를 전면중지할것이라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休戰의 두主役

◇베긴 이스라엘수상이 24일 休戰발표이후 그의 집무실을 떠나는 필립·하비브美중동특사에게 몇마디 얘기를 하고있다. 【예루살렘24日AP特約=聯】

한국, 日에 60억弗 借款요청

日紙보도 日, 安保차원서 지원방침

【東京25日=宋孝彬특파원】 …

頂上會談할때 經協문제妥結

스즈끼수상會見

【東京24日=聯】 스즈끼·젠꼬(鈴木善幸) 日本수상은 24일 『韓日관계를 조속히 개선하고 싶으며 全斗煥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측의 경제협력요청문제를최종적으로타결하겠다』고 강조했다.

大使10명異動

駐스페인	延河龜
뉴질랜드	咸永훈
아르헨	李秀佑
네덜란드	尹永敎
自由中國	金鍾坤
브라질	申鉉銖
바레인	宋成漢
스리랑카	鄭畋吉
가봉	咸泰爀
칠레	趙光濟

정부는 25일 … 駐스페인대사에 延河龜 …

◇延河龜대사 ◇咸永훈대사 ◇李秀佑대사 ◇尹永敎대사 ◇金鍾坤대사 ◇申鉉銖대사 ◇宋成漢대사 ◇鄭畋吉대사 ◇咸泰爀대사 ◇趙光濟대사

… 同法이 허용하고있는特任公館장제도의 첫 활용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도의 시행에 한계 관심을 끌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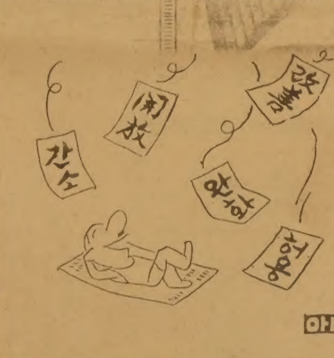
트뤼도 캐나다首相 9월21일 公式訪韓

【터론토25日=…특파원】 피에르·트뤼도 캐나다首相이 오는9월21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공식방문한다고 여기에서 알려졌다. 캐나다수상이 한국을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트뤼도首相은 全斗煥 대통령을비롯, 한국정부 지도자들과 만나 두나라 협력관계와 국제 문제전반에 걸친 협의를 가질예정이다. 트뤼도수상은 서울방문이 끝나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도 들렀다가 오는9월30일 멜버른에서 열리는 英연방수뇌회담에 참석할것…이라고 한다.

국회 商工委의원단 오늘 美洲방문길에

국회상공위 李台燮위원장을비롯, 金瑢泰, 尹國老(이상民正), 許京萬, 李元範의원(이상民韓)등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등 4개국을 방문키위해 26일하오 출국한다. 이들은 앞으로 20여일동안 방문국의 關稅制도를 시찰하는한편 鑛物자원의 안정공급 교섭도 벌일계획이다.

社會漫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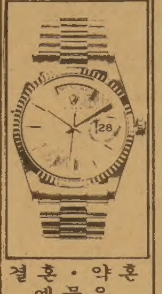


살기가 너무좋아지는거 아닌지…

地平線

…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온스당 US 406
은: 온스당 US 8.7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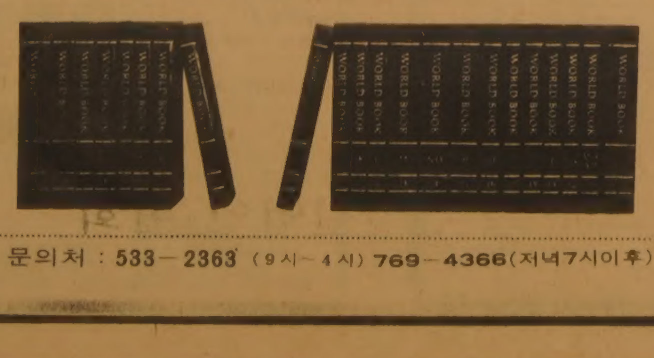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주식회사
신의상사
취급품목 ◆담배류
◆쵸코렛및 캔디류
◆GROCERY BAG류
116 TYCOS DR. TORONTO
TEL. 781-6669 * 781-6660 * 781-6012
대표 문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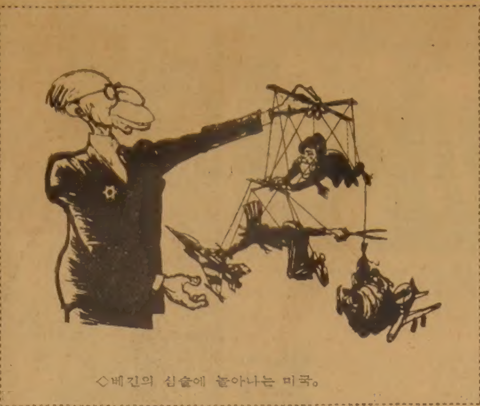
8월휴가 모국방문 특별요금안내
출발일자 : 8월 7, 14, 21, 28일
(뉴욕경유, KAL편)
요금 : 성인왕복 $1180
어린이 왕복
(2~12세) $645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여행사

593 BLOOR ST. W. TORONTO
(B)531-4607 (R)487-8088
성낙윤

World Book-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 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 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챠트 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533-2363 (9시~4시) 769-4366(저녁7시이후)



◇베긴의 심술에 놀아나는 미국。

살얼음판 休戰

베긴의 賭博

中東战 또 터질것인가 ㊦

PLO認定않는한 또再發

戰意포기않은 政治的所産

이、하비브종용에 PLO、발트하임呼訴 따라

2주째 치열한 보복전으로 달아올랐던 남부레바논에 또 한번 휴전이 왔다。맞서싸운 交戰쌍방이 …

… 이스라엘은 고립당하고 있는 같은 처지의 南阿共、대만、아르헨티나등과 핵개발등에 공동노력을 기울이며 협조체제를 모색하고있다고 심심치않게 외신이 전한다。

이미 이스라엘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리코미사일에 실어 쏘아 올릴 수 있는 핵폭탄 20여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美하원외교위의 비밀보고서는 밝히고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언젠가는 리비아、이라크、시리아등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더욱 예민해지고 있다。아랍국가들의 군사력이 우세해짐을 사전에 분쇄해야 한다는것이 이스라엘의 기본전략이다。

시리아는 급격히 군사력증강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73년전쟁에서의 패배를 교훈삼은 시리아는 1년전 3천대의 탱크를 확보했으며 최근에는 소련제최신형T72탱크 2백50대를 보강했다。

레바논내의 미사일배치를 둘러싼 시리아와 이스라엘간의 위기는 계속 중동전재발의 불씨로 남아있다。【崔海雲기자】〈끝〉

2週戰爭…400명희생

아랍國 "美、이支援계속땐 보복"

레바논派兵않을땐 아랍石油施設파괴

【다마스커스24日聯合】

「불씨」남긴채 砲聲만 멈춰

유엔軍司、接境지대 巡察

◇팔게릴라의 砲火로 불타는 이스라엘건물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휴전이 발표되기에앞서 팔레스타인측이쏜 포화로 파괴된 이스라엘측 건물。【키르야트샤모나25日UPI聯合=聯合】

國際焦点

이스라엘·PLO 休戰同意후의 南部레바논

레바논南部주민들 石油·食糧·음료難

PLO 最大지원 아랍聯、共同성명

【튀니스24日UPI=聯合】

팔레스타인게릴라 軍事活動계속될듯

【베이루트24日UPI=聯合】

시리아미사일基地 不攻擊포함을암시

【워싱턴24日AP=聯合】

◇낸시가 스펜서孃에 선물할 주발

레이건美 대통령의부인 낸시여사가 찰즈영국황태자와 다이애너·스펜서양에게 결혼선물로줄 타원형의 크리스탈주발에는 고대십자군의배가 새겨져있다。폭과높이가 각각 8인치와 13인치인 이 주발에는 …【워싱턴25日AP聯合=聯合】

休戰은 잠정적小康

베긴休戰수락 美압력때문

항구적 준수여부 懷疑的

【예루살렘25日聯合=聯合】

【텔아비브25日AP=聯合】

「이」서 이란行 軍需品 운반

前週 蘇영공墜落 아르헨機

【니코시아24日AP=聯合】 지난주 소련 영공에서 추락한 아르헨티나 화물수송기는 키프로스를 중간기착지로하여 이스라엘로부터 이란으로 가는 군수물자를 운반중이었다고 니코시아에서 발행되는 英字週刊 키프로스·위클리誌가 24일 보도했다。

이와때를 같이하여 익명을 요구한 키프로스 민간항공국의 한 관리는 이날 문제의 아르헨티나 수송기가 지난6월 한달동안 키프로스의 라르나카 국제공항을 중간기착지로 삼아 텔아비브—테헤란간을 모두 네차례 왕래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키프로스당국이 문제의 수송기에 적재됐던 화물내역을 공개할수는 없다고 말했다。

키프로스·위클리지는 이날 신원이 확인되지않은 런던의 정보소식통을 인용, 문제의 아르헨티나수송기에는 추락당시 각국정부에의해 국제무기업자로 낙인찍혀있던 신원미상의 영국인 한명이 유일한 승객으로 탑승했던 사실과 관련, 사고비행기가 무기밀매와 관련돼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 영국경찰은 현재 이영국인의 활동과 그의 사고비행기 탑승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있다고 전했다。

세계각국은 이항공기의 의혹적인 추락경위및 이항공기가 어떻게 상호외교관계가 단절된 이스라엘·이란간을 왕래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메아리

세계의 눈과 귀가 시흘뒤엔 영국으로 일제히 쏠릴것 같다。찰즈황태자의 결혼식을 앞두고 영국이 온통 술렁인다。

약혼 발표와 함께 많은 화제가 뿌려졌다。결혼식이 다가오자 지난달부터 국내외에서 쏟아지는 선물홍수로 버킹검궁당국이 쩔쩔매는 형편이라고 한다。

영국국민들은 황태자가 결혼하고 살 시골집을 마음에 두고 정원을 가꾸는데 필요한 泥炭이나 중고품인 쥐덫까지 선물로 보냈다。각국 정부에서도 선물에 신경을 써서 런던 주재대사관을 통해 영국정부에 문의를 했다。

버킹검궁은 선물이 중복되면 기증자의 양해를 얻어 자선단체에 보낼 궁리도 하고 있다。찰즈황태자 자신은 신체장애자를 위해 쓰여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혀온것으로 전해졌다。

영국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선물을 받지않는다。부득이 받았을 경우엔 나라에 곧 바친다。여왕만은 약간 예외로 선물을 받고 또 그선물을 남에게 주는것이 인정된다。

미국에선 공직자가 선물을 받는것을 법률로규제하고 있다。15년전 제정된 이법에따라 1백달러 이상짜리는 반드시 신고하고 재직중 소유했다가 직책을 떠날때 정부에 반납한다。이러한제도적인 장치는 공직의 윤리를 확립하고 부당한 치부를 막기 위한것이다。사회정의 실현의 강한 의지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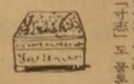
이 정신은 高下간에 철저히 지켜진다。사우디의 야마니석유상이 미국을 방문했을때 미국경호원들의 노고에 감사하여 2백달러를 주었다。이 「寸志」도 물론 즉각 정부에 반납되었다。

내일부터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에선 이채로운전시회가 펼쳐진다。全斗煥 대통령이 아세안5개국 순방때 각국 원수나 수상에게서 받은 선물을 순방기록사진을 곁들여 공개한다。

선물이란 주고 받는 사람 사이의 애정과 정성의 교류다。그렇기때문에 돈으로 환산할수 없는 귀중한 값어치를 지닌것이다。이번 선물·사진전은 「아세안의 友誼」를 다시 확인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전시가 끝나면 이 선물은 모두 국가에 귀속하게된다。공직자 윤리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전통이 세워지는 역사적 계기가될것은 더 말할 나위조차 없겠다。

友誼의 膳物展



라자이 90%得票

이란大統領선거

【앙카라25日UPI聯合】 모하메드·알리·라자이 이란수상은 24일실시된 이란 대통령선거의 첫개표결과 유효표의 90%이상을 획득, 다른 3명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앞서고있다고 이란국영 테헤란 방송이 25일 보도했다。

테헤란방송은 이란 내무성 발표를 인용, 축출된 아볼·하산·바니사드르 전 대통령의 후임자를 선출하기위한 이번 선거에서 집권회교공화당(IRP)의 후보로 출마한 라자이수상이 25일오후현재 10여개 도시와 해외부재자 투표의 중간개표 결과 압승을 거두고있다고 전했다。

방송은 라자이수상이 서부 칸스르에서 총1만8천7백표가운데 1만7천4백72표를 얻어 90%이상의 지지를 얻었으며 쿠르드족 거주지인 피란샤르에서도 8천7백6표중 6천7백82표라는 압도적 다수표를 획득했다고 보도했다。

이란관리들은 53명의 국회의원도 함께 선출하는 이번 선거결과가 오는28일 이후에나 밝혀질것이라고 전했다。

對蘇 軍縮협상 연내 再開공약

레이건 밝혀

【로스앤젤레스24日UPI=聯合】

辭任 壓力속에 "現職固守" 선언

케이시 CIA局長

議會·政府對決 조짐

【워싱턴24日AP=聯合】 윌리엄·케이시美중앙정보국(CIA)국장은 정실인사및 不公正기업활동관여혐의로 인한 의회의 사임압력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 24일 현직을 고수할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함께 로널드·레이건 대통령은 케이시국장에 대한 자신의 신임이 변함없다고 말했으며 하워드·베이커상원공화당원내총무는 케이시해임운동을 주도하고있는 배리·골드워터상원정보위원장(共)의 여하한 결정도 지지할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케이시국장사임문제를 둘러싸고 행정부와 의회가 정면대결할 조짐마저 보이고있다。

골드워터위원장은 케이시국장이 얼마전친구인 맥스·휴겔씨에게 CIA對外공작책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겼다가 주위의 압력으로 끝내 사임하게 만드는 물의를 빚은 한편 고위공직자로는 부적절한 기업활동에도 관여, 75만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고 지적하면서 케이시국장이 이같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책임을 지고 현직에서 물러나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케이시 해임운동에는 이밖에도 15人정보委 소속의원중 상원내 共和黨2인자인 테드·스티븐슨의원및 윌리엄·로드의원등 2명의 공화당의원들이 가세하고 있다。

케이시 국장은 이에대해 자신이 기업활동에 관여해 엄청난 이득을 취했다는 골드워터위원장의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자신에대한 혐의는 … 물러날 생각이 없으며 자신의 해명을 27일 정보委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해명할것이라고 강조했다。

海外토픽

日서도 야회복契約

★스펜서양禮服 디자이너

헤드폰끼고 運轉

★交通法規위반으로 판결

【東京=AP】 【로마=UPI】

오늘의 역사 <26일>

▲英 작가 쇼우리출생	(1894)
▲伊 바도리오政權 수립	(1943)
▲美·英·佛, 서독정부수립 결정 성명	(1948)
▲쿠바혁명 시작됨	(1953)
▲나세르 대통령 수에즈운하 국유화를 선언	(1956)
▲8代국회 개원	(1971)
▲세계최초의 시험관아기 英서 출생	(1978)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 — 4 AM
토~일 : 12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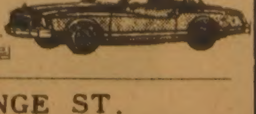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 977—9734

NORTH YORK CHEVROLET OLDSMOBILE GM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항상 아낌없이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월1일부터
저희 회사에서는
종전과 같은 주소에
카나다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제일 큰 쇼—룸과
써비스 시설을
갖추고
여러분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써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아오니
1차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병 권 올림

김 병 권

새차및 중고차



7200 YONGE ST.
THORNHILL L4J 1V8
☎ : (B) 881—5000, (R) 496—0954

Addison

BUICK
PONTIAC
CADDILLAC
Cadillac

권 재 훈

새차와 중고차 LEASING

전 북미주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GM의 신형모델 J2000가 에디슨에 나와 있읍니다. 각종외국 수입품보다 Engineering, Technology, Gas Mileage에서 월등하며 GM역사상 가장 센세이숀널 J2000을 시운전 해보시고 북미의 이 새로운 Feeling을 체험해 보세요.

ADDISON BAY at COLLEGE
(B) 964—3211 Howard Won

미국 이민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 이민쿼터제
● 노동허가법
● 학생비자발급
● 그외의 문제등, 또한 지금 어떠한 종류등 이민수속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으신분

위와 같은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시는 문제들에 대하여 전화나 편지를 주시면 뉴욕에서 다년간 이민법에 종사하신 미국인 변호사 ROGER C. ALGASE(알게이즈 씨)에서 즐거이 맡기쉽고, 자세히 성의껏 답해 드립니다.
사무실엔 항상 한국인 보조원이 계시어 불편없이 도와 드립니다.

연락번호 : (212) 762—5100
연락주소 : 136—31 ROOSEVELT AVE. Suite #2
FLUSHING, N. Y. 11354

韓美 議員외교 6年만의 順航

丁來赫국회의장一行, 워싱턴訪問의 成果

부정적 對韓觀지닌 議員과 폭넓은접촉
"주한美軍철수론은 試行錯誤였다"是認
美要人들 "지난일 털어버리고 友誼다지자"

◇丁來赫국회의장이 23일 워싱턴에서 조지·부시 副통령과 만나고 있는모습. 【워싱턴25日UPI電=聯合】

週末政局

「예상한 憂慮」 말끔히 씻고

【워싱턴=李成俊특파원】

言語의 經濟學
國際競爭시대…장사는 對話서부터

◇말하고 들을수있는 외국어실력은 국력의 수준을 나타낸다. 국제화시대를 맞아 언어(외국어)의 經濟性은 더욱강조되고있다. 【사진은어학연수실내부】

외국어실력의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수 있을까. 우리나라 수출업계를 주도하고있는 국내 종합상사들이 장기계획하에 조직적으로 해외에 파견할 상사주재원들의 언어교육을 키워왔다면 올해 수출목표는 2백5억달러가 아니고 4백억이나 5백억 달러가 되어있을것이 틀림없다. 장사는 對話이고 對話의 質은 외국어실력이 좌우하기 때문이다.

商談「직접對話」해야成果
외국어못하는 「良質의 人的 資源」넌센스
綜合商社 해외駐在員 고작 6개월 研修

국제회의서 「과묵하고 고독한 紳士」免해야

【金基永기자】

韓美合作銀 大宇 大株主로결정

6大企業참여폭 擴大
빠르면 年內설립될수도

내년上水道사업 集中投資
普及率 70%로 총千百만톤생산

상반기중 建設업체 好況
27上場社총賣出2조6천억 작년比58%伸張

◇상반기건설업영업실적 (단위=억원·%)

	매출액 80 上	매출액 81 上	매출액 증감율	순이익 80 上	순이익 81 上	순이익 증감율
京南企業	793	1,800	126·9	32	33	3·1
東亞建設	2,224	2,870	29	183	190	3·8
東山土建	217	300	38·2	2	11	81·8
大林産業	2,194	3,000	36·7	275	300	9
新星工業	138	220	59·4	5	7	40
正友開發	339	500	47·4	20	25	25
三扶土建	595	850	42·8	43	45	4·6
韓信工營	554	800	44·4	27	35	29·6
極東建設	543	860	58·3	37	60	62·1
三益住宅	327	400	22·3	5·1	•7	37·2
南光土建	520	890	71·1	23	45	95·6
漢陽住宅	1,332	2,300	72·6	72	90~120	25~66·6
라이프住	495	750	51·5	29	35	20·6
太平洋建	268	700	161	9	16	77·7
進興企業	459	700	52·5	14	22~25	57~78·5
大宇開發	989	1,500	56·4	17	45	164
京鄕建設	38	80	110·5	3	4~5	33·3~66·6
三湖住宅	504	1,200	138	13	16	23
共榮土建	517	1,400	170·7	18	60	233
韓逸開發	843	1,200	42·3	52	70	34·6
高麗開發	167	350	109·5	6	10	66·6
美隆建設	834	1,000	19·9	19·9	35	75·8
豊林産業	252	450	78·5	10	12	20
금강	214	400	86·9	5	5~6	0~20
韓國建業	238	400	68	4	10	150
三煥企業	774	1,110	43·4	51	70	37·2
新韓機工	65	80	23	16	—	—
계	16,433	26,110	58·88	974(990)	1,258	29·1

※추정·괄호안은 新韓機工포함

日言論界중진 訪韓
韓國文化協會 招請

국민、高法抗訴키로
曺德鉉의원 選訴에

북한뉴스
休戰線지역 住民에 사상·行動통제강화

한국일보 詩壇

鶯霖 — 鄭韶坡

빗발 낭줄 엮어 짜는
올쪽날쪽 북의 가락。
방울져 후룩이어
숲을 덮어 내리는 건…
꾀꼬리
봄새내 울어
엉킨 설움
쏟는 비。

널 둘다、눈이 감겨
꼬박 졸아 날 보내고、
산울림 메아리어
온골짝 하나 되던…
낭랑한
그 소리였기
비를 불러
장마 졌나。

노랑 입섶、빨간 부리
젖어 쉬인 네 목소리。
퍼붓는 장대비에
어느 모롱 헤매돌아…
흐느껴
애인 슬픔에
울던 우뢰
멎누나。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3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SHANGHAI RESTAURANT
• 메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등
•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 : 864-9347

각종 한약재 도매
보약조제및 상담
●우황청심환 ●우황 ●사향 ●웅담 ●녹용 ●정주사 ●해구편
중국의사와 진료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시간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偉信公司 KINGS IMPORTS
428 DUNDAS ST. W. TOR.
☎ : (416) 977-9818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새벽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정렬, 김선남

한 국 관
냉면·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 200석 완비
OPEN :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TORONTO
536-0290

블루어안경
●Zeiss(Marwite) ●Rodenstock
●Christian Dior ●Nina Ricci
●Menrad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영업시간 : 월~목·9 : 30AM~7A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주 소 : 629 BLOOR ST. W. TOR.
전 화 : 531-2236(B), 282-2369(R)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아침에

한국博士도 알아줄날 와야한다

海外유학도좋지만 學問의 自給自足을

海外로 移民、旅行、留學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연다는 것은 언제나 시원한 법이다。 더구나 나라의 생존과 발전이 여러 면에서의 국제적 교류와 진출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 진입하는 정도에 따라 이런 開放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반면 연다는 것은 또 어떤 허전함을 수반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운 開放을 염려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해외유학의 開放을 두고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나는 해외유학개방 자체를 걱정하지는 않는다。 부자집 아이들이 주로 가게 될 것이라든가、그것때문에 違和感이 생길 것이라든가、高校를 졸업하고 大學부터 외국에 留學하면 국가관이 희미해질 것이라든가 하는 걱정은 별로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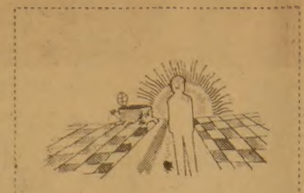
그보다는 해방후 한 世代가 지난 지금에도 우리의 기본적인 학문의 自給自足體制가 미비하다는 점、그래서 외국유학이 지금도 동경의 대상이 되고있다는 점이 서운하다。 高級頭腦의 자체생산체제를 갖출것을 서두르지 않고 해외유학 門戶만 개방하는데 걱정이 따른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高級頭腦養成을 그렇게 크게 外國에 의존해야 하는지。 언제까지나 우리 大學 大學院 研究機關의 학문자급자족체제는 그렇게 零細해야만 하는것인지…。

× × ×

내가 처음 유학갔다 온 것은 50년대 초、그리고 60년대 초에도 다시 갔다왔다。 그후 한 世代가 지난 지금、내 아들딸들도 더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꿈꾸고 있다。 그런 꿈을 나무랄수는 없다。 유학가는것이 더 공부도 되고、그 學位과정을 自他가 더 평가하기 때문이다。

내 유학시절 그렇게 또렷하게 의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희미하게나마 「비록 나는 유학왔더라도 이다음 내 아들딸은 이런 공부를 한국에서도 능히 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고 바랐을 것이고、그런 學問社會、教育社會를 건설하는 것이 먼저 갔다온 유학생들의 책임이려니도 생각했을 것이라면、지금 상황에는 한 世代동안 學者라는 칭호를 달고다녀온 사람으로서 一抹의 허전함과 책임감마저 느껴지는것이다。 그동안 30년 무엇을 했기에 아직도 學問의 自給自足體制를 이루지 못하였는가。



해방후 36년、많은 유학생이 외국을 다녀왔다。 지금도 美國에 들러보면 한 만 대학에는 한국학생이 1백명、2~3백명이 된다。 그 수는 30년전 20년전에 비해 훨씬 많은것이다。 教育熱이 높은 그 많은 유학생이 언뜻 자랑스럽게 느껴질수도 있을는지모른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도리어 허전하다못해 잊은 의구심마저 느껴질수도 있다。

외국에 가보면 그많은 한국학생에 비해 일본의 유학생은 大學에는물론 大學院에도 극히 드물다。 일본은 벌써 그대부분의 碩士·博士를 자체생산하고 있고、그만큼 自他가 共認하는 고등교육과 학문의 자급자족체제를 갖추고있다。

외국에 「留學」하는 일본사람의 대부분은 碩·博士는 국내에서한 후에 見聞을 넓히기 위해서 단기간 研修·觀察하러 온 사람들이다。 이런 연수·관찰을 정부가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도 들었다。 내가 아는한、일본의 이러한 고급두뇌 자체생산 체제는 벌써 36년전 終戰전후에 이미 이뤄져 있었다。

일본에서도 해외유학의길은 우리보다도 더활짝 열려있을 것이다。 그래도 일본학생들은 學士는 물론 碩士·博士도 일대부분 국내에서 하려한다。 門戶는 열렸어도 별로 외국유학을 동경하지 않는다。 그만한 공부는 일본국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해외유학의 길을 넓게 트는 것 자체는 좋다。 그러나 국내에서 고등 교육과 학문의 자급자족체제의 成熟의 계획없이 해외유학의 길만 터놓는다면、언제까지나 우리는 고급두뇌양성을 외국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염려와서글픔을느끼게된다。 急進하는 學問社會에서는 碩·博士생산은 기본적인 체제에속한다。

× × ×

물론 우리의 여러 大學에도 碩士·博士과정이 많다。 碩·博士과정을 두는것이 마치 대학의 명예에나 관계되는 것처럼 여러 곳에 그 과정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國際的 水準의 것이라고는 自他가 별로 共認·公認하고 있지않다는 현실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거기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全時制 풀·타임制 碩·博士과정이 드물고 대부분은 有職者가 一部時制 파트·타임으로 공부하고 學位를 따는 體制다。 그래서 알맹이보다 간판을 위한 과정인 감이 짙어진다。 碩士과정에서는 그래도 全時制가 늘어가고 있으나 博士과정에서는 全時制는 아직도 常例아닌 例外가 되어있다。 集中專心하는 공부아닌 공부이기 때문에 별로 무게있는 것이라고 공인받지 못한다。 여기에서는 全時制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이 殆無한 상황도 관계된다。

연구시설、연구비、연구프로젝트의 빈곤도 관계된다。 고급두뇌를 겨우는 碩·博士과정은 강의수강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교수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여 實驗·實習·演習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大學院이 大學과 다른 점이있다면 바로 이 점이다。 연구비에서 助教나 장학금도 나올수 있다。 강의만이수하고 나중에 좋은논문을 쓰는 것만으로는 어엿한 대학원교육이 될 수가 없다。 지금의 여러 出處에서의 연구비가 이렇게 대학원교육을 살찌게 하는 연구비라기보다는 그 零細性 때문에、그리고 그 운영체제 때문에 마치 교수개인의 생활보조비와 같은 성격을 지게 띠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한국의 대학교수는 웬일인지 이일저 일에 바쁘다。 여간 결심하지 않고서는 지그시 차분히 연구에 몰두하고 大學院生과 부지런히 씨름할 시간을 얻기가 어렵다。 生計때문에 여기저기 시간강사를 하는 수도 있고、이 委員 저 委員이 되는 수도 많고、外部講演도 하고 전공과 관계가 희박한 통속 원고도 써야하고…。 사회봉사가 대학교수의 한임무라고는 하지만、여간 각오하지 않고서는 學究外의 일에 이리저리 불려다니기 쉬운 內的·外的 요인이 너무많다。

막연한 말이지만 學的風土·知的風土의 문제도 있다。 사회가 학구적成就를 다른經濟、權力、出世의 成就의 上位는 아니더라도적어도 동등한 가치로인정하는 風土、學究者가 學究外的기준에 의해서가아니라 學究的기준에 의해서 평가되는風土、學者의 연구가 풍성하게 발표되고 풍성하게 읽히는 風土、한 연구의 가치가 허심탄회하게 長은 長으로、短은 短으로 평가되는 風土등이 아쉽다。

한 식물이 일정한 풍토에서 더 잘자라듯、고급두뇌양성을 위한 大學·大學院도 일정한 정신적 풍토에서 더 잘 안착된다。

우리의 고급두뇌양성체제가 이모저모 부실하다면 유학을 꿈꾸는 젊은이를 나무랄수는 없으며、나무라기는커녕 도리어 가라고 권장할도리밖에 없다。 그리고 자니 한국에서 학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의 심정에는 허전함과 서글픔과 自責마저 뒤섞인다。

국가발전에서 우리는 흔히 경제발전、정치발전、사회발전이라는 말을 자주듣는다。 나는 이것과 견주어 學問發展 또는 學術發展을 동등한 發展課題로 취급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학술발전은 그자체가 內在的 가치를 가질뿐 아니라、궁극적으로 다른 모든 측면의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나는 믿는다。 나아가 主體性의 궁극적인 근원도 思想·學問·技術의 자체생산력에 있다고 믿는다。 思想、學問、技術의 隷屬性이 없어 강력있는 한、모든 발전도 언제나 後進을 면할수 없으며 다른모든 主體性의 갈망도 노도속 破船의 가냘픈 哀禱哀訴에 불과해 진다。

정부도 민간도 경제발전에 골몰해 왔듯이、이제는 학술발전이라는 과제、그 고급두뇌를 자체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이룩하는 과제、그래서 모든 면의 발전의 원동력과 주체성을 떨치게 하는 과제에 골몰해야할 것으로 믿는다。

고급두뇌의 자체양성을 이룩하기에 필요한 高級頭腦人的資源은 국내·외에 이미 충분하다고 본다。 문제는 이런 人的資源을 어떻게 적절한 제도、정책、재정을 동원해서 活性化하느냐에 있다。

× × ×

해외유학의 문호개방은 좋다。 다만 그것은 동시에 자타가 공인할수있는 고급두뇌의 국내자체양성체제、학문의 자급자족체제를 서둘러 갖추려는 노력을 수반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점점 심한 知的依他性의 늪에 빠져들어 갈것이라는 전망이 불가피하다。

經濟大國의 꿈도 좋다。 그러나 그보다는 어느날엔가 세계에서 「학문을 배우려면 한국에 가라。 철학、과학、기술을 배우려면 한국에 가라。 예술을 배우려면 한국에 가라」라는 定評이 된다면 그때 정말 한국이 진실로 발전된 국가가 되는것이 아닐까?

내 아들 딸들이 대학졸업후 원하면 외유학을 보내겠다。 그러나 내 손자 손녀들의 世代엔 國際水準의 博士정도는 국내에서 어엿하게 공부할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鄭範謨 〈忠北大學校 총장〉

나의 이력서

윤치영 ④ 〈題字·윤 치 영〉

高麗 門下侍中지낸 尹莘俊이 始祖

예부터 壯士·武家의 집안으로 소문

海平尹氏家系

이번에는 우리집家系를 소개해야겠다。

우리門中은 海平尹氏로서 高麗仁宗때 門下侍中을 지낸 尹莘俊이 始祖이다。 本貫은 海平으로서 輿地勝覽에 의하면 신라시대에는 並井縣、高麗初에는 海平郡、李朝에 들어와서는 善山郡海平縣이었으며 지금의 慶北善山郡海平面이다。

언젠가 故朴正熙 대통령과 함께 山에 있는 그의 先塋에 간일이 있다。 風水地理를 보니 脈이 살아있는 名所였다。 그山勢가 이어지는 건너편쪽이 海平이다。 나는그때 朴 대통령에게 『여기서 이어지는 저 건너쪽이 우리조상의 근천』이라고 말을 건넸다。

이에대해 朴 대통령은 『그러면 朴家와 尹家가 충돌한단 말입니까』고 농담을해 한바탕 웃던일이 생각난다。

始祖이래 門中에서는 文武人과학자들이 나왔는데 가장 우뚝한 이로는 12代祖로 宣祖때 영의정을 지낸 梧陰 尹斗壽公을 들수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우리家門을 일으킨 이로 19代祖인 祖父를 꼽아야 할것 같다。

이 세상사람들은 일찌기 우리집안을 壯士집안、武家의 집안이라고 불렀다。 지금에 이르러선 어울리지않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韓末의 風雲期엔 武願이 가득한 집안으로 소문이 났었다고한다。

나의 할아버지(尹取東)는 19세기초 水原에서 충남 牙山으로 이사를 했다。 할아버지 내외분 3형제분이 水原의 離宮자리에 살다 터를바치라는 나라의 命때문에 맨손으로 땅을 두고 南下했다。

그래서 궁벽한곳에 이르러 자리를 잡은곳이 牙山郡 新村이라는 마을이었다。 高麗山줄기를 타고 山勢가 秀麗한 옥토였다。 할아버지내외분은 땅을일궈 옥토를 이루어 千石부자가 되었다。 饑饉이들던 시기엔 들에 죽을 쑤어 동네에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폈다고 한다。 특히 할머니 덕을 크게 베풀어 칭송을 많이받았다。

그러나 자손이 없어 수심에찬 할아버지내외는 날마다 뒷산 松林에 올라 치성을 드렸다。

그러다 할머니가 40이 되던 1840년 庚子年에 아들을 얻었다。 자라면서 기골이 장대하고 씩씩해 雄烈이라 이름지었다。 나의 큰아버지다。

뒤이어 3년뒤 또 아들을얻어 분에 넘치는 天恩으로 알고 온집안이 기뻐해 英烈이라 이름했다。 나의 아버지다。

伯父는 자라면서 勇力이 대단했다고한다。 17세에 武科에 응시、급제를 해 哲宗御前에서 紅牌와 御賜花를 받았다。

이때부터 武人의 긴 履歷이 시작돼 1904년 軍部大臣(元帥府軍務局總長) 內藏院卿兼 政府贊政에 오르기까지 파란만장의 길을 걷는다。

1880년5월 伯父는 修信使 金弘集 朴泳孝 金玉均 閔泳翊 일행과 일본에 갔다。 백부는 開化維新의 기운을 보고 우리도 國運을 일으키려면 새로운 장비、새로운 兵制、새로운 조직에 의한 군대를 양성시키는 게 시급하다는 걸 절감했다。 그래서 당시 일본에서 신무기인 村田銃을 구입하고 일본인교관을 데려와 신병훈련을 시키면서 군대維新을 도모했다。

1882년엔 종래의 5營을 2營으로 개편하고 別技軍을 조직했다。 백부가 신병대장의 領官의 직을 맡은게 이때다。

그러나 그 야심만만한 포부는 1882년6월 가뭄이 극심하던때 일어난 壬午軍亂으로 깨어지고 말았다。

閔氏一族의 暴惡한 威勢에 병사들이 반발을 일으켰고 여기에동조했던 백부는 日本으로 亡命했다。

그뒤 백부는 甲申政變에 참여、새 내각의 군부대신이 되었으나 開化黨세력이 3일天下로끝나자、귀양길에 오르고가족들도 피신했다。 당시집안은 풍지박산의 형상이었다한다。

백부의 勇力에 대해선 지금도 고향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있다。

쇠가마를 한손으로 번쩍 들어올리고 御前에선 8道의 내노라하는 장사들과 씨름을 벌여 모두 물리쳤다고한다。

나의 부친도 백부를 닮아선지 힘이 장사였다。 부친도 백부를 따라 武科에 나서 무관이 됐다。

그러나 백부는 아들들에겐 武보다 文을 가르쳤다。 자신이 무관이기 때문에 자식에겐 문관을 시켜조화를 이루게 함이었는지 또는 기질과 적성을 알고 그에 맞는 교육을 시키려했는지는 잘모르겠지만 백부는 佐翁(尹致昊)등을 비롯한 아들들에게 漢學을 비롯한 文의 학습에 전념케했다。

백부는 韓日합방 다음해인 1911년 9월20일 7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아쉽게도 우리 집안에서 지금까지 武풍을 물려받은 사람이 거의 없는 것도 어쩌면 이武家의 기운탓이 아닌가 한다。

◇우리집안 武班의 대표격으로 韓末에 法部와 軍部大臣을 지낸 伯父 尹雄烈。

제2의 國政改革

行政改善 46개主要 內容과배경

民願人들 混亂없게

戶籍 居住地중심、日帝때 잔재拂拭

施行과정 관료閉鎖性 극복이 關鍵

정부의 成長발전 沮害요인 개선심의위(위원장·南悳祐 국무총리)가 24일 확정한 46개 주요改善課題는 정부 조직의 정비、외교정책시행기구의 활성화로부터 稅制개편과 사회교육의 제도화、土地제도의 정비개선、농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國政전반에서 찾아낸 불합리한 제도와 법령의 정비、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있어 제2의國政改革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청탁배제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과제만해도 정부 각部處廳에서 추출한 62개의 부조리소지업무분야에서 24가지의 개선과제가 채택되는 등 작업량이 방대하며 총무처에서 낸 정부조직의 정비과제는 정부기능의 합리적인 再配分과 불합리한 내부조직의 재조정、행정권한의 위임확대라는 개선방향을 잡고있어 이 과제가 실천되면 정부조직에 상당한 변화가 올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이번 개선작업은 우리나라 행정의 고질적인 병폐로 돼있는 관료사회의 폐쇄성과 部處간의 비협조성이 얼마나 개방될 것인가에 따라 그 成敗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illegible]

改善될과제의 내용

【河長春기자】

[illegible]

請託배제를위한제도개선 (行政委) [illegible]

複合民願의 재검토 (行政委) [illegible]

각종위원회정비 (行政委·내무부·총무처) [illegible]

認許可등의정비 (行政委) [illegible]

행정법령벌칙제도의개선 (行政委) [illegible]

行政節次제도의개선 (總務處) [illegible]

외교정책立案능력의향상 (외무부) [illegible]

안전관리제도의개선 (行政委) [illegible]

품질검사제도의개선 (行政委) [illegible]

지역간문화적격차의해소 (문공부) [illegible]

도서출판기능의 확충 (문공부) [illegible]

정부조직의 정비 (總務處) [illegible]

법령의效力검토와정비 (法制處) [illegible]

◇46개 주요改善課題

	課題	主管部處
1.	제5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획원
2.	국영기업체의 經營改善	〃
3.	예산제도개선	〃
4.	정부공사계약제도의 개선	조달청
5.	정부조직의 합리적정비	총무처
6.	行政節次制度의 개선	〃
7.	컴퓨터 도입제도의 개선	과기처
8.	원호제도의 개선	원호처
9.	외교정책 입안능력의 향상 정책시행기구의 活性化	외무부
10.	對民奉仕行政의 개선	내무부
11.	거주지중심의行政制度로의발전(호적과주민등록의발전적통합)	〃
12.	金融産業의 능률화	재무부
13.	稅制改編과조세행정 개선	〃
14.	關稅率調整과통관제도 개선	〃
15.	商法의 정비	법무부
16.	民法의 정비	〃
17.	軍事施設 보호구역규제 완화	국방부
18.	군인의역연금지급제도 개선	〃
19.	병역제도의 개선	병무청
20.	정부학술연구비의 효율적 운영	문교부
21.	教員人事制度의 합리적 개선	〃
22.	社會教育의 제도화	〃
23.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제도적 개선	농수산부
24.	수출입업무의 제도적 개선	상공부
25.	中小企業지원제도의개선	〃
26.	海外資源開發 지원제도의 개선	동자부
27.	土地補償제도의개선	건설부
28.	土地制度의 개선	〃
29.	식품위생의약품관리제도의개선	보사부
30.	環境保全제도의 개선	환경청
31.	産業災害보상제도의 개선	노동부
32.	技能人力양성및직업안정活性化	〃
33.	企業主와 勤勞者의 협조증진및관리혁신	〃
34.	대중교통행정의 개선	교통부
35.	관광행정의 개선	〃
36.	전화이용의 자율화	체신부
37.	지역간 문화적 격차의 해소	문공부
38.	도서출판기능의확충	〃
39.	認許可등의 전면적 재검토	행개위
40.	複合民願의 재검토	〃
41.	請託배제를 위한 제도적개선	〃
42.	行政法令·罰則제도의 개선	〃
43.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
44.	품질보장을위한檢査制度의개선	〃
45.	中央및 일선행정기관의 위원회정비	행개위 내무부 총무처
46.	현행법령의 효력검토및 정비	법제처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여러분의 삼복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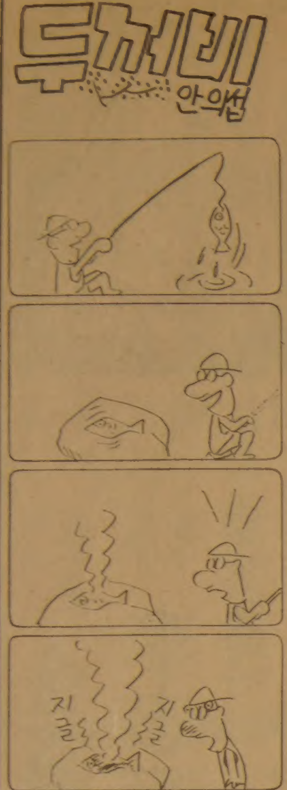
한번 와 보세요.
또 오시게 됩니다.
왜냐구요?
삼복식품점은
첫째 : 친절하고
둘째 : 정직하고
세째 : 물건이 싱싱하니까요
　그리고 만족한 쇼핑을 하고 돌아가시게 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여름철 식탁준비는 친절하고 정직한
삼복식품점으로……

	REG.	SPECIAL
①경기미 20kg	$ 24.50	$ 22.50
②참기름(일제) 1갈론	11.50	9.50
일제전기밥솥(한사람1개)	159.95	120.00
④일제소면(BOX당)	11.40	9.50
⑤냉면(2인분) 봉지당	1.29	0.99
⑥물미역 파운드당	1.99	1.59
⑦삼치	½ PRICE	
⑧이면수	½ PRICE	
⑨한국산 미역	½ PRICE	

이 외에도 약20여가지의 특별세일 품목이 있음.

삼 복 식 품

2437 FINCH AVE. W. 전화 : 743—8270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승려들「住持쟁탈」亂鬪劇

曹溪宗 임명 부임에 贊反 佛國寺 법정飛火·月精寺 실력대결

바리케이트치고 충돌…승복찢는등 소란

【慶州·原州=특】 대한불교 조계종이 임명한 慶州佛國寺와 강원 月精寺등 두 큰절의 주지부임을 둘러싸고 승려들이 찬반으로 갈려 집단 편싸움을 벌였다。 佛國寺의 경우 소동에 이어 분쟁이 법정으로 번졌고 月精寺에서는 바리케이드까지 치고 계속 실력행사 중이다。

24일 하오4시20분께 불교조계종 종단에서 佛國寺주지로 임명받은 金月樓스님과 종단측승려 30여명이 佛國寺에 도착, 일주문앞에 쳐놓은 바리케이드를 뚫고 경내로들어가려다 佛國寺측승려 50여명과 충돌, 양측승려 20여명이 집단난투극을 벌여 승복이 찢어지는등 1시간30분동안 소동을 벌였으며 일부신도들도 이소동에 합세했다。

이날 佛國寺측 승려들은 『현지 의사를 전혀 무시한 종단의 결정에 승복할수 없다』고 주장, 사찰경내로 들어오는것을 막다 충돌을 빚은것。

한편 佛國寺측승려들은 大邱지법 慶州지원에 金月樓스님의 佛國寺주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慶州지원은 25일상오10시 吳張熙부장판사가 이를 심리했다。 이날 재판부는 상오10시30분 심리를 종결, 오는29일 상오10시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고지키로했다。

한편강원도五臺山月精寺주지로 총무원인사위원인 金能慧스님(44)이 발령되자 주지 張寶應스님(70)을 비롯한 전주지 虛스님(61)등 승려 40여명을 포함한 신도 1백20여명이 신임金주지의 부임을 반대, 五臺山관리사무소입구에 바리케이드를치고 계속 대치중이다。

신임 金주지는 24일하오7시께 불교신문 편집국장 李香峰스님과 江陵法王寺 李相淳주지와 함께 月精寺입구인 五臺山국립공원관리사무소앞까지 들어가 張전주지와의면담을 요청했으나거부당했다。

이에대해 대한불교 조계종단은 『종헌 종법에는 말사주지들의 추천이란 절차가필요치않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돼 있으며 종단내부의 문제를 소송 진정 탄원 투서등의방법으로외부로끌고나갈때는 이를 종단차원에서 징계토록돼있다』고 밝히고 『月樓스님을 佛國寺 주지로 임명한것은 범종단적인 입장에서 교육사업과 종책수행에 적임자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객預託金빼내 私債놀이

마을金庫 慶北사무국장 令狀

【大邱=특】 大邱지검특수부는 25일 마을금고연합회 경북도지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선 마을금고가 맡겨온 정기예탁금 6천만원을 빼내 사채놀이를 해온 姜大律씨(51·大邱市南區鳳德洞736)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姜씨는 지난79년7월10일 마을금고사무실에서 星州새마을금고 이사장 裵信洪씨가 맡긴 정기예탁금 2천9백70만원과 마을금고 吳春植상무가 맡긴 정기예탁금 3천여만원등 모두 5천9백70만원을 금고에 입금시키지도 않고 이들에게 허위정기예탁금증서를 발급해준뒤 이돈을 친구 金모씨(48)등에게 월3푼이상의 고리로 빌려주는등 사채놀이를 해왔다는 것。

◇체면도 버리고 佛國寺주지로 임명된 金月樓스님측승려와 佛國寺측승려들이 정문앞에서 멱살을잡고 실랑이를 벌이고있다。【慶州=특】

서울發 京釜線화물열차

倭館서 2시간延發

釜山에 2시간연착

25일 상오1시57분께 경부선 하행 서울기점 2백91·2㎞지점인 경북 若木~倭館사이 선로에서 서울을 떠나 釜山으로 가던 제971소화물열차가 기관차고장으로 기관차를 교체하느라 倭館역에서 2시간5분이나 연발했다。

故金鍾喜씨 殯所에 全大統領 弔意전달

全斗煥대통령은 25일 平統자문위원인 故金鍾喜韓國火藥그룹회장의 빈소에 金貞烈平統자문회의 부의장을 통해 조의를 표했다。

故韓圭昌공보관 文公部葬 영결식

지난18일 아프리카의 세네갈에서 교통사고로순직한 駐세네갈대사관의 故韓圭昌공보관(43)의 영결식이 25일상오10시 서울국립극장에서 文公部葬으로 엄수됐다。 정부는 故韓공보관을 부이사관으로 추서했다。

無人島 히로뽕密造團검거

7個派타진 百4億臺 密賣·日人등 13명拘束

保社部 마약監視員도 구속

서울지검특수3부(黃相九부장·鄭洪原 金成浩검사)는 25일 일본인2명이 포함된 7개파 16명의 히로뽕밀제조·판매조직 규모를 검거, 밀조범 梁熙鎬씨(50·서울江南區驛三洞305)등 13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保社部 마약감시원 吳國煥씨(35·서울江西區禾谷洞328의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각각구속하고 姜貞淑씨(31·여)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팔다남은 히로뽕완제품 2·4㎏과 원료5점 불법행동사기등을 증거물로압수했다。

이들은 히로뽕밀조 밀매범들 단속을피해 서울,부산,晋州등지로 거주지를 자주옮기면서 직업도 여러가지로 위장, 심지어 모터보트까지 사들여 무인도를 전전하며 히로뽕을 제조해왔는데 검찰수사결과 지난77년10월부터 지금까지 밀매한 히로뽕은 1백4㎏(싯가 1백4억원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의하면 히로뽕제조 전과3범인 梁씨는 지난79년 7월부터 서울江南區驛三洞 자기집에 밀제조시설을 갖추고 히로뽕3㎏을만들어 판매책인 閔泰萬씨(51·부산西區槐亭1洞890)에게 팔았다는것。

梁씨는 또 최근 단속이 심해지자 지난15일 같은 驛三洞으로 이사, 직업을 광고장사로 위장했으며 신변안전을 위해 한국프로레슬링협회 심판관인 金聖甲씨(52·구속)를 보디가드로 고용하기도했다。

또 崔完洙씨(50·부산南區[illegible]洞)는 지난5월초 자기집에서 거울공장 밀조인 朴明秀씨(40·구속)에게 히로뽕제조원료인 염산에페드린 15㎏을 대주고 그 댓가로 히로뽕완제품 3㎏을받아 팔았으며 지난7월15일에는 판매책 尹吉洙씨(61·구속)에게 히로뽕2㎏을 팔았다는것이다。

東國大生3명 선고

示威혐의 징역10월

서울형사지법 李相京판사는 25일 교내에서 불온유인물을 뿌리고 시위를한 康世極(21·행정과 4년) [illegible](20·영외과 3년) [illegible]피고인(24·법학과3년)등 東國大학생 3명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적용, 각각 징역 10월을선고했다。

주택賦金불입때 利子소득세先納
積金타봐야 約定액수보다 적어

잇단窓口시비…加入해약사태
特別장려금등 改善策 있어야

庶民만 손해

불쾌지수가 높은 무더위속에서 은행의 각종 적금창구와 복지주택부금창구앞에서 고객과 창구계원사이에 높은음성이 오간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실랑이의 주인공은 예금금리조정(80년9월16일)과 개정소득세법(81년1월1일)에 따라▲적금액을 계약액수만큼 타내지 못하는것과▲주택부금을 부을때 역시 당초의 약정과는 달리 부금이자 소득부에대한 세금을 선납케하는 두가지。 창구계원은 제도가 바뀌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설득하고있고 가입자들은 『계약위반이니 불이익을 감수할수없다』고 버티고 있는것이다。 결국 많은돈을굴리면서 이자에 의한 불로소득을 많이 올리는 계층을상대로해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인것이 서민들이 대부분인 소액적금과 주택부금에서 사단이난것인데 해당자가 수십만명이상이니 작은 문제랄수만도 없다。

—1년만기 百만원定期적금 비교해보면—

●法改正전 보너스합쳐 百2만5천7백원

●개정후엔 所得稅등빼고 99만천2백11원

경제계인사와 관계자들은 서민층이 주로이용하는 적금과 주택부금에대해서는 종래와같이 특별장려금을 주거나 정부보조금을주어 저축의욕을 계속올려주는것이 바람직하다는견해를 보이고있다。

예금금리와 이자소득 세율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만해도 각은행은 적금가입자들이 만기에 적금을찾을경우 계약금액에다 특별보너스 금리까지 추가지급했었다。

예를들면 지난해 9월16일 이전에 1년만기 계약금 1백만원짜리 정기적금에 가입한경우 만기가되면 계약금 1백만원과 2만5천7백원의 보너스금리까지 합쳐 1백2만5천7백원을 탔다。

그러나 금년1월1일이후 같은적금에 가입한 사람의경우 이자소득세 7천4백80원, 주민세 5백61원, 방위세 7백48원등을 공제해 결국 손에 쥐는 금액은 99만1천2백11원으로 계약금액 1백만원보다 8천7백89원이적은 돈을타게된것。

원인은 종전에는 0·75%의 방위세만 물면 됐던것이 개정소득세법의 소득세율 상향조정으로 소득세·주민세·방위세등 모두 11·75%의 세금을내야 되기 때문이다。 11·75%의세액은 소득세10%와 이에대한 방위세10% 주민세7·5%로돼있다。

이를 모르고있던 가입자들은 『은행이 사기를 치느냐』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이미 들어있는 적금을해약하는고객도 많다。

제일은행樂園洞지점적금창구 C양은 『우대금리까지 생각하고 적금에가입했다가 세금을 떼고 계약금도 못찾아가는 고객들가운데는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계를 붓는게 더 낫겠다』며 이미 들어놓았던 적금가입을 해약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득세법개정으로 당초 계약조건과는 달리 연이자소득에대한 세금을 월불입금과함께 현금으로 먼저 받아야하는 주택은행의 중·장기 주택부금창구는 더욱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은행에서는 가입자들에게 개정세법을 납득시켜야 하고 또 계정원장에 이자소득세 공제내역을 기장해야하는등 업무량이 크게늘어 애를먹고있으며 가입자중에는 역시 돈을내지않고 되돌아가거나 아예 해약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가입자들은 『이자소득세를 불입금과함께 떼내는 제도가 어디있느냐』며 은행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려 하지않으며 『그같이 변경된 사정을 왜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기 일쑤라는것。

지난해 8월 10년제 8백만원짜리 부금에 들어 매달 3만2천1백60원씩 불입해온 주부 朴京淑씨(35·서울冠岳區奉天10洞459)는 이해할수없는 조치때문에 불쾌해 지난달 11개월만에 해약, 주택선매청약부금에들었다。 朴씨는 『융자조건도 까다롭게 바뀐데다가 소득세를 현금공제한다는 바람에 해약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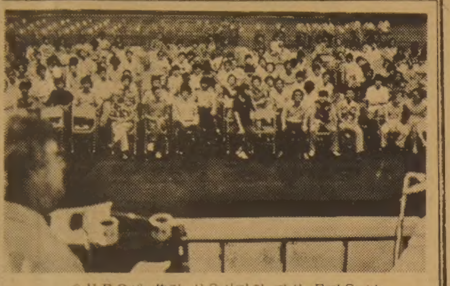
지난10일 불입금을 내러왔던 주부 尹汝貞씨(42)의경우 지난해7월 3년제 5백만원짜리에 들어 매달11만2천6백원을 부었는데 이날이자소득세 8천2백34원을 내라고 하는 바람에 부금을 내지않고 있으며 해약해야할것같다고 말했다。

주택은행본점 부금과장 金昇東씨(38)에 의하면 은행측에서도 가입자들의 반발을 예상, 종전처럼 방위세만 내도록 해줄것을 연초재무부에 건의했으나 실현되지않았다는 것。

지난해 7월10일 시행된 중장기복지주택부금은 3년~20년제등 6가지종류로 1천만원까지 융자해주며 다른부금과달리 매달 납입하는 부금에대해 부금이자를 연단위복리로 계산, 매1년마다 원금에가산해 만기에는 가입당시의 계약금액을 받을수있도록 되어있다。

시행초기에는 하루평균 가입자가 4만명선까지 육박하는등 폭발적 인기였으나 지난해 8월부터 격감하기 시작, 80년8월1일현재 48만1천1백73명이 가입, 계약고 3조7천6백73억2백만원에 이르렀던것이 81년6월30일현재 4조6백[illegible]억원, 월납입액 6백35억6천6백만원에 머무르고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은행저축부장 李昌圭씨는 『지난해 이자율개정과 금년초 이자소득세조정때도 장기소액저축자를 보호하기위해 월불입금 [illegible]만원이하 2년만기의 우대가계정기적금에는 계속 특혜를 주고있다』고 밝히고 『현재로서는 특별보조금등으로 세금을 떼는 부분을 보상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任喆淳·朴珍烈기자】



◇UFO에 쏠린 서울시민의 관심。무더운 날씨탓인지 경이와 신비에 싸였다는 강연내용에 비해서 청중수가 적었다。

믿거나 말거나 UFO講演會

—한여름 무더위 식혀

美신학자 "金星人과 매주 만난다" 異色주장
"지구에 外界人30명…1명은 美國防省근무했다"

세테이 스토리

지구에 비행접시를 타고 온 금성인(金星人)이 30여명이나 살고있다고 주장하면 믿을 사람은 극히 드물것이다。 또 금성인중 1명은 美국방성에서 근무한적도 있다고 하면 믿을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외계인에 대한 지구인의 관심은 UFO(Unidentified Flying Object미확인 비행물체 통상=비행접시)에 대한 호기심과 맞물어 있는데 이 「믿기지 않는 사실들」에 대한 강연회가 바로 서울에서 열리고 있어 화제。

25·26일 이틀사이에 [illegible] 실내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UFO대강연회」가 바로 그것。 이 신기한 강연회를 주최한 사람과 단체는 「아[illegible]」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趙慶哲박사(慶熙大교수)와 趙박사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우주과학회。

「우주UFO협회」미국총재와 「우주UFO교령(交靈)기지 계획본부」라는 이름의 단체 창시자인 李昌煥씨가 이 강연회 고문을 맡고있다。

趙박사에 의하면 외계인 UFO목격건수는 모두 2만여건으로 이중 최소한 7·7%인 1천5백여건은 현재의 과학으로도 해석할수없는 비행접시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6·25동란이 일어났던 지난 50년 미군조종사에 의해 UFO가 처음 목격된데이어 해마다 2~3건씩 잇따라 목격되고있다。 어떤 일본천문학자는 지난70년대초 충남 계룡산에 UFO기지가 있다는 증거를 잡았다고 해 한때 조사를 벌이는등 관계자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버드대학 천문학과교수는 지난30년대부터 UFO에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 미공군에 보고된 [illegible]

이번 강연회 연사중 가장 이색인사는 미국인 신학자 프랭크·스트레인지스박사。 외계인을 직접 보았다는 스트레인지스박사는 『자신이 지난57년 금성에서 온 발쏘르라는 외계인을 만난후 지금까지 매주 1~2번씩 접촉을 계속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만난 발쏘르는 미국방성(펜타곤)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구인과 손금이 없었다』고 말했다。

[illegible]

【鄭榮鎬기자】

美國에「챔프」붐

호반의 都市 포트헨리 觀光客 유치에 안간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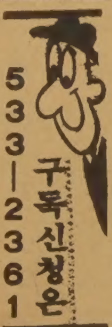
미국동북부 뉴욕주의 조그만 호반도시 포트헨리에서는 요즘 「챔프붐」이 일고있다。

상점의 쇼윈도마다 뱀처럼 길다란목을 가진 공룡을 닮은 챔프의 모습을 그린 포스터가 붙어있고 마을입구에는 「챔프의 고향 포트헨리에 와주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쓴 대형아치가 세워져있다。

챔프란 포트헨리를 끼고있는 챔플린호수에 산다고 믿어지는 수중괴물의 이름이다。 3백50여년전 프랑스 탐험가 새뮤얼·드·챔플린이 이 호수를 발견한 이래 챔프에대한 이야기는 전설처럼 이마을에 전해져내려왔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챔프는 머리는 말처럼 생겼는데 두귀가 작고 목이 뱀처럼 가늘고 길며 둥그런 등을 수면위로 내놓은채 1~2분가량 헤엄을 즐기다가 갑자기 물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포트헨리 주민의 한 친구인 챔프가 최근 갑자기 각광을 받게된 것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챔프붐을 일으켜 관광객을 유치해보자는 市당국의 바람때문。【外紙】


구독신청은 533-2361

30度이상 暴炎 2週째

오늘 물놀이人波 피크예상

연2주째 계속되는 섭씨30도이상의 무더위는 일요일인 26일에도 계속, 물놀이 인파가 피크를 이룰것 같다。

중앙관상대는 전국을 휩쓸고있는 이같은 무더위는 강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때문이며 내달초순까지 이어질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25일 전국은 全州의 35·7도를 최고로 淸州가 35·6도, 釜山·忠武·木浦등 남해안은 32도 안팎이었다。

서울지방의 경우도 25일 낮기온이 33도2분을 기록, 올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를 보였고 한때 36도까지 올랐던 江陵·束草·浦項등 동해안 지방은 이날 28~30도로 비교적 낮은분포를 보였다。

우편파업을 극복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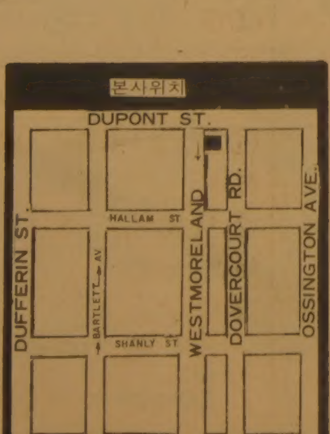
■ 본사는 파업중에라도 신문을 매일 발행 주3일 식품점등에 배달하여 독자들께서 무료 픽업하실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 파업이 끝남과 동시 그간 못보내드렸던 신문을 전부 우송합니다

★ 정상근무를 계속하는 본사는 특히 파업기간중 수금이 안돼서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읍니다. 광고료및 구독료등을 인근 식품점에 맡겨 두시거나 본사 근처를 지나시는 길에 잠간 들려서 내주시면 크게 감사하겠읍니다.

어려운 때인 만큼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신문 계속 발행
광고 계속 접수


본사위치
DUPONT ST.
HALLAM ST
SHANLY ST
BARTLETT AV
DUFFERIN ST.
WESTMORELAND
DOVERCOURT RD.
OSSINGTON AVE.
BLOOR 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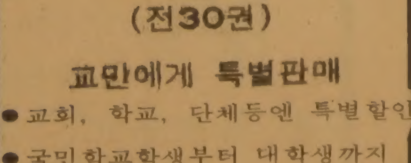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무료픽업처

고려식품
동양식품
반도식품
한국식품(본점)
(동부)
〃 (서부)
한밭식품
서울식품
삼복식품
한국관
한국일보사

구독 및 광고문의
(416) 533-2361

大英百科辭典
BRITANNICA 3


NOW 30 VOLUMES!

(전30권)

교민에게 특별판매

● 교회, 학교, 단체등엔 특별할인

● 국민학교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쓸 수 있읍니다.

● 모국의 동생, 스승, 학교에 보내는 편리한 방법도 있읍니다.

문의처 : 745-5485 미세스 황

한국 男子배구 캐나다에 快勝

준결리그 1次戰서 3-0

【부쿠레슈티=楊森록파원】 한국남자배구팀은 24일 밤11시(한국시간)에 열린 81년도 유니버시아드대회 6일째 배구준결승리그 첫경기 캐나다와의 대전서 3-0으로 쾌승, 1승을 올렸다. 한국은 姜斗泰 金炯泰가 블로킹벽을 두텁게쌓고 張允昌의 오픈공격、文湧征 柳重卓의 시간차공격과 중앙돌파속공으로 캐나다에 낙승했다.

한국은 캐나다、소련、쿠바와함께 B조에속해있는데 이날쿠바가 소련을 3-1로 제압、한국팀은 26일밤 10시30분에 벌어지는 쿠바와의두번째경기가 4강이겨루는결승토너먼트 진출에 고비가될 것으로 보인다. 4강 결승토너먼트에는 A、B조 상위2개팀이 진출、크로스·매치로 최종결승 진출팀을 가린다.

夏季 유니버시아드

테니스 混合組 金壽玉·全瑛大 메달圈進入

男子농구 李忠熙등 활약 폴란드 制壓

陸上8百m 金福柱 準決진출

테니스 혼합복식서 한국의 金壽玉·全瑛大조는 스위스의 루에가·파우렌조를 7-5、6-4로 격파、준결승에 진출、메달권에 들어섰다. 金壽玉·全瑛大조는 中共조와 준결승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9~16위 결정전에나간 한국 남자농구팀은 李忠熙 李琅鉉의 활약으로 폴란드를 70-68로 제압했다. 한국은 李忠熙의 외곽 숏과 曺東佑의 골밑숏으로 전반을 38-32로 앞섰고 후반 폴란드의 장신 공격을 간신히 따돌렸다.

육상 남자 8백m 예선에출전한 金福柱는 1분49초91로 4위를 차지했으나 기준기록돌파로 16명이 벌이는 준결승에 올랐다. 그러나 2백m의 張在根은 준결승서 21초49로 5위를 기록、아깝게결승진출이 좌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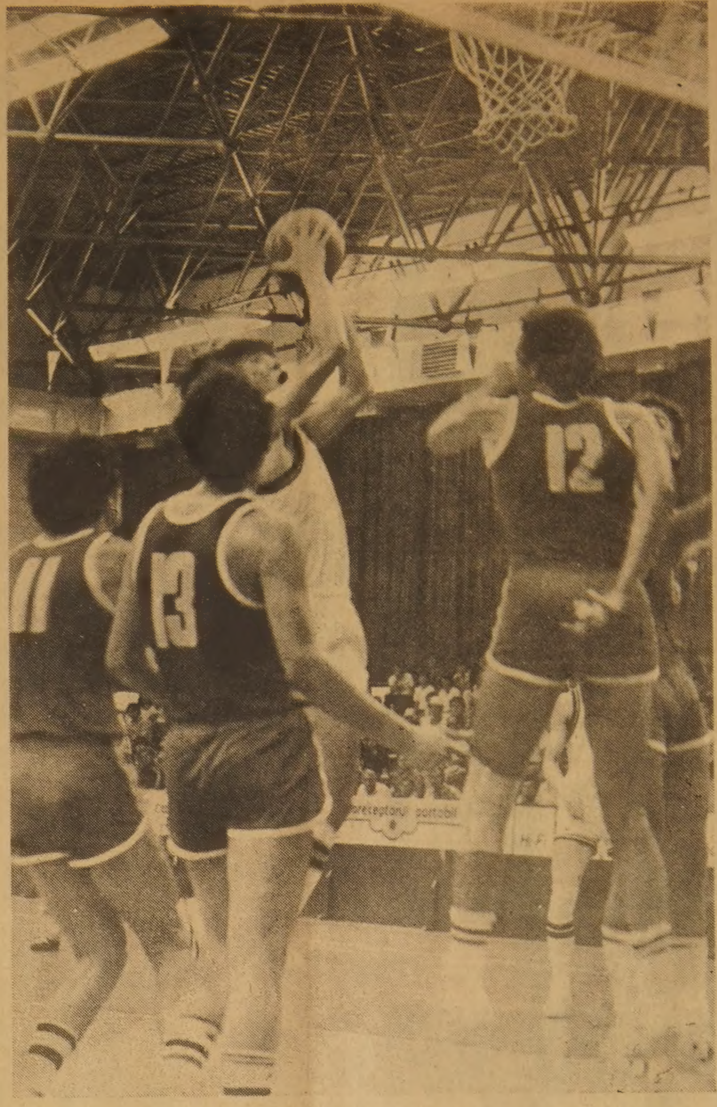
◇제6일전적

◆배구 ▲B조준결승리그2
한국 3(15-4 15-7 15-6)0 캐나다 (1승)(1패)
쿠바 3(15-12 15-9 11-15 16-14)1 소련 (1승)(1패)

◆농구 ▲9~16위 결정전
한국 70(32-36 38-32)68 폴란드 (1승)(1패)

◆테니스 ▲혼합복식준준결승
金壽玉·全瑛大 2(7-5 6-4)0 루에가·파우렌

◆육상 ▲남자8백m예선2조=① 파우엘·트로시로(소련) 1분48초66 ②사이드(모로코) 1분48초90 ④金福柱(한국) 1분49초91(준결진출)
▲남자2백m준결승=⑤張在根(한국) 21초49(준결탈락)



◇골밑숏 시도 한국과 폴란드의 대전。曺東佑가 골밑 숏을 시도하고있다. 【부쿠레슈티=楊森록파원】

◇2백m준결승에 진출한 張在根。그러나 張은 준결승서 탈락、결승진출이 좌절되었다. 【부쿠레슈티=楊森록파원】

韓國 메달랭킹20위 루마니아 金20先頭

【부쿠레슈티=楊森록파원】 韓國은 U대회 7일째인 25일현재까지 메달집계에서 알제리 濠洲 가나등과 함께 공동20위를 달리고 있다.

◇각국 메달집계

	국가	金	銀	銅
①	루마니아	20	12	9
②	蘇聯	18	19	19
③	美國	13	8	2
④	中共	7	5	5
⑤	이탈리아	4	1	2
⑥	東獨	2	4	1
⑦	西獨	1	1	1
⑧	헝가리	1	1	0
⑨	폴란드	1	0	3
⑩	英國	1	0	2
⑪	日本	1	0	1
⑫	모로코	1	0	0
⑬	유고	0	2	0
⑭	브라질	0	1	3
⑮	체코	0	1	1
⑯	핀란드	0	1	0
⑰	불가리아	0	0	5
⑱	쿠바	0	0	3
⑲	프랑스	0	0	2
⑳	韓國	0	0	1
⑳	알제리	0	0	1
⑳	濠洲	0	0	1
⑳	가나	0	0	1

韓國 民俗무용단 美 태권示範

제1회「월드·게임」어제 팡파르

샌타클래라서 60國 千5百선수 參加

【샌타클래라=聯】 비올림픽종목의 종합국제대회인 제1회 월드·게임이 60개국 1천5백여 남녀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25일상오10시(한국시간) 美國서부의 휴양도시 샌타클래라대학교 버크쇼스타디움에서 개막됐다. 이날 개회식은 스카이다이빙시범낙하를 스타트로 1백명의 미국태권도시범단의 시범과 韓國민속무용단의 화려한무용이 펼쳐졌고 로머스·켈리국제경기연맹회장의 개회선언과 레이건美國대통령의 축사를 콘라드특별보좌관이 대독함으로써 개회식무드는 절정에 달했다.

이어 기술라 산타클라라시장의 환영사、그리고 金龗龍대회집행위원장은 개회사에서『이번 대회가 7년만의결실이며 올림픽에 대항하기위한 대회가 아니고 비올림픽종목의 세계대회를 갖는것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세계역사를 다진는데 정치를 떠나서 국제연맹 기치아래 한데뭉쳐 정치를 배제하고 스포츠맨끼리의 이해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식은 美國전역에 우주중계됐다.

이번대회는 야구·배드민턴·볼링·보디빌딩·캐스팅·태권도·가라데·소프트볼·파워리프팅·롤러스케이팅·수중무용·수상스키·줄다리기등 13개 정식종목과 다트볼·덤블링 여자수구등 3개종목의 시범경기가 펼쳐진다.

지난22일 이곳에 도착한 韓國선수단은 4개팀이 출전해 풀리그로 패권을 가리는 야구경기서 28일 對濠洲전、29일 對파나마전을 거쳐 30일 美國과의 마지막 경기를 펼친다. 이밖에 태권도와 볼링은 오는30일부터 경기에 들어가는데 韓國은 최소한 금메달 10개를 목표로 하고있다.

배드민턴 不戰勝 單複式 8強진출

한편배드민턴은 단·복식에서 부전승으로 모두 8강에 진출함으로써 메달획득전망이 밝아졌다.

이번대회시드배정을 받지못한 金鍊子는 우승 후보인 지난해 세계랭킹2위 리엔기 바나가 불참함으로써 8강에 올랐고 복식서도 강적 印尼가 기권해 金鍊子·黃善愛조가 준준결승에올라 메달입상이 유력시되고있다.

黃忠載 8차防禦戰 오늘 比립판한맞아

東洋·太平洋권투연맹(OPBF) 웰터급챔피언 黃忠載가 26일 하오5시 文化체육관에서 도전자 동급8위인 다닐로·릴판한(필리핀)을맞아 타이틀 8차방어전을 벌인다.

서울信託 결승진출

金融團축구 洪晃杓결승골로 韓一銀제압

제11회 대통령배쟁탈 금융단 축구대회 7일째 준결승전이 25일 효창구장서 속행、서울信託銀行은 전반36분 洪晃杓의 결승골로 韓一銀行을 1-0으로 제압、第一銀行-企業銀行 승자와 패권을 다투게 되었다. 이대회는 작년 유산되었고 79년에는 서울信託이 우승을 차지한바있다.

이날 서울信託과 韓一의대전서 양팀은 접전을 벌이다 전반36분 서울信託이 승기를 잡았다. 서울信託은 李相燁이 센터링한볼을 鄭甲泰이 洪晃杓에게 헤딩으로 패스、洪이 가볍게 밀어넣어 결승점을 뽑았다. 韓一은 전후반 여러차례의 득점찬스를 맞았으나 골로 연결 시키지 못했다.

◇제7일준결승
서울신탁 1(1-0 0-0)0 한일은행

◇서울信託과 韓一銀行의 대전서 양팀선수들이 볼을잡기위해 육탄전을 벌이고있다.

白山高·慶北師大附高·沃川工高 組1·2位로 4強戰

市道대항 高校배구

제3회 KBS배쟁탈 전국시도대항 고교배구대회 4일째 경기가 25일 장충체육관서 속행、남고A조의 慶北師大附高는 白山高를 3-2로 물리쳐 忠南商등 예선3팀이 모두 1승1패를 기록、세트득실차로 白山高가 1위로、慶北師大附高가 2위로 각각 4강에 올라섰다.

B조의 沃川工高는 襄仁善의 블로킹과 1m78의 단신 金基洙의 강연공으로 城都高를 풀세트 접전끝에 누르고 3연승을기록、예선수위팀으로 결선에진출、慶北師大附高와 결승리그를 놓고겨루게 되었다. 세트스코어 2-2를 이룬 뒤 沃川은 襄仁善 金基洙등 2년생들의 활약으로 6-3、10-7、13-9로 리드를 잡았다. 그러나 城都는 金泰一의 서브·포인트를 스타트로 朴熙珍 李鎭福등의 연속블로킹·포인트와 상대공격실책등을 묶어 4득점、13-13、막판 사력을 다해 추격했다. 沃川 金基洙는 왼쪽에서 상대수비 허점을 찌르는 페인트공격으로 2포인트를 연속으로 따내 팀승리에 공헌했다.

◇제4일전적
▲남고A조
경북사대부고 3(15-7 4-15 15-8 15-13 13-15)2 백산고
▲동순위=①백산1승1패 ②경북사대부1승1패 ③충남상1승1패 (세트득실차)
▲동B조
옥천공고 3(15-13 15-3 14-16 12-15 15-12)2 성도고
(3승)(1승2패)

大田北中 꺾고 培材중 우승

전국中高럭비

【大田=聯】 제1회 충무기쟁탈 전국중고럭비 선수권대회 4일째 최종경기가 25일 大田 東亞工高체육관서 열려 중등부서 培材中이 大田北中을 10-4로 누르고 우승했다.

◇최종일 결승전
▲중등부
배재중 10(3-4 7-0)4 대전북중

大會新 10개기록

初·中·高陸上、金鍾鎰넓이뛰기優勝

【釜山=聯】 제2회 바로기쟁탈전국시도대항 초·중·고육상경기가 13개시도대표 1천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5일 釜山구덕운동장에서 개막、2일간의 경기에 들어갔다.

첫날경기에서 대회신 10개가 기록됐다. 남고 넓이뛰기에서 金鍾鎰(충북)은 지난 6월 멕시코주니어 육상대회때 수립한 자신의 최고기록 7m98에는 크게 못미치는 7m30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金煥珍 3段資格證 韓國기원에서 받아

지난19일 프로복싱 WBA주니어 플라이급타이틀매치에서 멕시코의 챔피언 페드로·플로레스를 KO로 누르고 세계왕좌를 차지한 金煥珍선수가 韓國기원으로부터 바둑아마추어 3단자격증을 받았다.

金선수는 25일 상오11시 韓國기원 이사장실에서 이사장 李成範씨로부터 자격증을 받았는데 그는 지난78년12월3일 2단자격증을 따낸바있다.

金선수는 이자리에서『꿈은 권투가 내가추구하는 주목표지만 정신수양의 측면으로볼때 바둑도 소홀히 하지않겠다』고 한마디。

美프로野球 파업에 政府 적극개입

海外 스포츠 話題

球團主 자유계약 選手보상 3분의2이상 고집

政府 "3분의1까지 인정하자" 調整案 제시

選手 "연방조정관의 決定따라 승복 하겠다"

美國 연방정부가 프로야구 파업을 종식시키기위해 적극적인 거중조정에 나섰다. 16일에 있었던 선수와 구단주의 협상이 아무런결과없이 무산되자 레이몬드·도노반 노동장관은 17일 양측대표를 워싱턴으로 불러 본격적인 중재작업에 들어갔다.

도노반장관은『메이저리그의 파업은 곧 美國민에 대한 파업』이라며『미국민의 소리를 대표해서 노동성은 선수와 구단주의 협상테이블에 나가 타결을모색하겠다』고 파업중재에 대한 확고한 결의를 나타냈다.

파업 41일째로접어든 메이저리그는 이미 4백90게임(시즌 전체 2천1백게임의 24%)을 취소했으며 14일에 거행될 예정이었던 올스타게임도 아울러 연기된바 있다.

거의 6주간의파업에 지친 선수들은 이번파업문제를 연방조정관에게 일임하여 그들의 결정에 양측이 승복하자는 최종의견을 제시했으나 구단주에의해 거절됐다. 구단측은 자유계약선수들의 이적에따른 보상을 모든 자유계약선수에게 적용시켜야한다는 종래주장을 굽히지않고 있다.

이 보상이란 구단이 자유계약선수의 팀이탈로 생기는 손실을 막기위해 선수를 데려가는 팀을프로선수스카우트 드래프트에서 제외시키자는 규정을 말한다.

이렇게되면 선수를 다른팀으로부터 빼앗아가는 팀은 우수 신인선수를 충원할수 있는 기회를잃게되어 치열한선수스카우트경쟁을방지할수있는 장치가 된다. 메이저리그의 자유계약 선수가 되려면 메이저리그에입단한뒤 최소한 6년이 지나야한다.

연방조정관은 자유계약선수의 3분의1에 한해서 보상을 인정하자는 대안을 제시、선수측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었으나 구단은 3분의2이상의 자유계약선수를 보상조건으로 묶어야 한다며 대안을 거부했다. 구단주들은 이미 과도한스카우트경쟁으로 구단의 재정이 파탄지경에빠져있다며 그들의 요구조건을 관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노반 노동성장관은 17일부터 워싱턴에서 양측대표를 개별접촉、양쪽의견과 이해를 들은뒤 선수、구단、연방조정관이 참석하는 협상회의를 곧 재개하겠다고 밝혔다.【AP】

아 세 아 선 물 센 타

SUMMER GRAND SALE (기간 : 81년7월15일~8월31일까지)

북경우황청심환 40% OFF	인삼녹용환 백봉환 40% OFF	당뇨병 특효약 옥천환 30% OFF	중국 길림산 녹용 3 BRANCHS 40% OFF
카나다 산 웅담 40% OFF	여행용 가방 삼손 나이트 30% OFF	물개, 뱀가죽 백 30% OFF	남녀청바지 $16.99
고급펜 크로스 30% OFF	피에르 · 카르뎅 와이샤스 30% OFF	피에르 · 카르뎅 벨트 30% OFF	기타 : 게브랄티 비타민, 전기다리미, 고급화장품등등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 530-0522, 3 조 지 섭, 김 영 철

麗水·木浦등 밀수大型化

稅關적발 昨年比 33%증가…件當 千萬원

【光州=聯】麗水·木浦·群山등 서남해안 항구를 통한 밀수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으며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25일 光州세관에 따르면 지난1월부터 6월말까지 관내 麗水·木浦·群山세관에서 적발한 밀수는 총1백80건, 16억8천9백9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로는 33·3%인 44건이 늘어난데 불과하나 건당 평균 밀수규모는 지난해의 2백21만5천원보다 무려 4·2배가 늘어난 9백39만 8천원으로 집계됐다.

또 세관별 밀수단속실적은 光州세관이 43건에 1천6백10만원, 木浦가 28건 1천7백12만원, 群山86건 1천4백23만원인데 비해 麗水세관은 23건에 16억4천2백50만원으로 나타나 아직도 麗水항이 서남해안일대의 밀수중심지임을 드러냈다.

적발된 밀수품을 품목별로 보면▲의약품류가 15억3천5백82만원으로 지난해의 80만4천원보다 무려 1천9백배가 늘어나 주종을 이루었고 ▲사무용품이 4천92만원으로 12배▲화장품류가 6백74만원으로 2·6배씩 각각 증가한데 반해▲금괴는 지난해 1억7천3백만원상당에 달했으나 올해는 없었다。

한편 光州세관관계자는 이같은 밀수의 대형화현상에대해 麗水항을통한 히로뽕밀수가 아직도 성행하고있기때문이라고 분석하고 『밀수중심지인 麗水항에대한 집중단속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有害가스영향도 메밀재배로실험

【蔚山=聯】국립환경연구소는 蔚山공단내 각공장에서배출하는 아황산가스·불소등 유해가스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위해 오는29일부터 메밀재배시험을 실시한다。

서울대학교 연구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시험은 메밀이 농작물중 공해에 가장 민감하다는데 착안, 공장에서 내뿜는 유독성가스가 메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 공해방지사업과 농작물피해보상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것。환경연구소는 이번조사에서 대기오염이 특히 심한 蔚山市呂川洞 梅岩洞 黃城洞등 16개지점에 메밀시험포를 만들어 생육상태를 조사하고 아울러 공해농장 인근에있는 나무도 수령에따른 생장력을 조사할 계획이다。

炭더미에 광부壓死

【春川=聯】24일상오7시30분께 강원도 旌善郡新東邑芳堤3里 咸白광업소 개발항입구로부터 지하 1천9백60m 지점에서 채탄작업중이던 광부 全在淳씨(32·旌善郡新東邑鳥洞2里)가 쏟아져 내린 1톤가량의 탄더미에깔려 그자리에서 숨졌다。

細川저수지싸고 對立

大田市·大德郡농민 서로 使用權주장

【大田=聯】大淸댐이 완공되면서부터 그동안 大田시민의 상수도원으로 사용하던 충남大德郡東面細川里 細川저수지가 건설부에의해 용도폐지되자 이물의 사용권을놓고 大田市와 大德郡농민들이 서로엇갈린주장을하고있다。

大田市는 지난5월15일 건설부가 저수면적 5만9천6백평방m에 저수량 36만3천톤인 細川저수지를 용도폐지하자 지난 6일「細川저수지 활용계획」을 마련, 이물을 하루 3천5백톤씩 기존상수도 시설을 이용, 시내를 관통하고있는 大田川에 방류, 오염된 大田川을 정화하고 大田川3개소에 높이 1m의 댐을 조성, 집중호우때의 수량을 조절하며 평상시에는 大田댐을 시민풀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었다。

大田市의 이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大德郡東面細川里 농민 3백여명(대표 鄭貫根·50)은 細川저수지물은 만년천수답인 저수지아래있는 만여평의 농경지의 농업용수로 이용해야한다고 주장、25일 大田市와 大德郡에 각각 진정했다。

농민들은 『細川저수지는 50년전인 1931년 건설된후 10여년동안 농업용수로 사용하다가 40년대부터 大田市가 상수도원으로 독점、그동안 농업용수를 공급받지못해온 만큼 이제 용도폐지된 이상 매년 한해에 시달리고 있는 농경지를 위해서도 細川저수지물은 농업용수로써야한다』고 주장했다。

殉職 金雲成교사 天安高서 學校葬

【天安=聯】[illegible] 23일 충남 天安高 교련담당 金雲成교사(41)와 제자 [illegible](17·1년)의 장례식이 25일상오11시 天安高교정에서 유족및 동료교사·제자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장으로 엄수됐다。

고金교사는 23일상오6시30분께 千里浦해수욕장에서 天安高학생48명을 데리고 야영을 하던중 林鉉洙군이 바다급류에 휘말려 허우적거리는것을보고 뛰어들어 구하려다 함께 숨졌는데 이들의 시체는 사고32시간만인 24일 하오2시께 사고지점서 3백m떨어진해역에서인양됐다。

裝備허술…바다警察署

東海岸 망원경·救命조끼등도 없어

【浦項=聯】경북 동해안일대의 각 해수욕장에 바다경찰서가 설치돼있으나 구조장비가 없어 인명구조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지난8일부터 浦項·松島해수욕장과 북부해수욕장에 파견된 21명의 구조대원들은 망원경·휴대용마이크·구명조끼등 구조장비도없이 우·잠수복3벌과 산소통6개、민간업자로부터 지원받은 구조선2척만가지고 구조활동을 펴고있다。

◇다리의난간이 파손돼 아예없어졌거나 너덜너덜달려있는桐華橋。3년이 넘도록 原城郡당국은 보수를하지않고있다。

放置3년…破損난간

原城郡桐華橋 하루 車2百대 운행

【原州=聯】강원도原州에서 경기도驪州、利川、서울로연결되는강원도原城郡文幕面桐華里 桐華橋가 난간이 파손된지 3년이넘도록 방치되고 있어 사고위험을 안고있다。

길이45m、너비4·2m、높이12m로 42번국도상에 있는 桐華橋는 하루 시외버스가 原州-驪州간을 20회운행하고 있는것을 비롯 각종화물트럭 2백여대가 난간이부서진 다리를 곡예운행하고있다。

해방직후 건립된 이다리는 노폭이 겨우4·2m밖에 안돼 교차운행을 할수없는데다가 낡아서 대형차량이 진할때는 다리가 흔들릴뿐아니라 난간이 부서져나간 운전사들은「마의다리」또는「한국판 콰이강의 다리」로불리며 이를 방치해온 행정당국의 무성의를 비난하고 있다。

한편 이지역주민들은 국도에있는 다리가 난간이 부서져없고 군데군데 너덜거리고 있는것이 안전운행과 미관상으로도 좋지않으므로 보수공사및 다리확장공사를 해줄것을 여러번 반상회를통해 건의했으나 原城郡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있다는것。

요란스런 地球村

世界의 社會面

裸體族에 섬내줄수없다

印尼 開放說「사실무근」주장

인도네시아체신관광성은인도네시아의섬하나를 나체족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부인했다。아크마드·티르토수디로장관은 최근 『나체주의는 인도네시아문화와 전통에 반하는 것이기때문에 인도네시아엔 나체족에게개방하고있거나 앞으로 개방할 섬이 없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더위가 오자 나체주의자들이 제철을 만났다。美캘리포니아州 마리부북쪽 레오·카리요 해변에서 남녀 나체주의자들이 어린아이들 처럼 줄다리기로 희희낙락하고있다。【마리부(캘리포니아)=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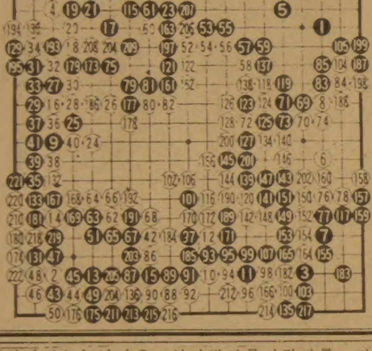
항간에는 인도네시아정부가 발리섬동쪽 누사·템가라해변을 나체족들이 이용할수있도록 특별히 허용해왔으며 나체족들은 그곳에서 자유체제할수 있게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약1만3천개의 섬으로구성된 인도네시아에는 전체섬의 거의절반이 무인도인데다 보트로도 쉽게내왕할수있는 곳이 많기때문에 티르토수디로장관의 이같은 강력한 부인은 논리적으로 무리가있는것도 사실이다。아울튼 인도네시아정부는 원유및 원목수출에다음가는 제3의 주요외화수입원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키로 결정한바있어 나체족에게 섬을 개방할 가능성은 배제할수없다。

인도네시아 체신관광성에 따르면 외국관광객수는 극히 적어 작년의 경우 56만1천명을 기록했을뿐인데 이숫자도 전년비 12%가 증가한 것이다。【자카르타=AP】

第12期 名人戰 挑戰5番棋

第3局 總譜 202手完 黑4집반勝 (각5시간 덤5집반)

白(挑戰者) 徐奉洙〈1勝2敗〉
黑(名人) 曺薰鉉〈2勝1敗〉



挑戰者막판에 몰리다

名人은 이한판을 쾌승함으로써 도전자를 막판에 몰아넣었다。나머지 2국중 1국만 이기면 물론 名人位를 방어하여 7개타이틀중 4개를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라이벌 徐3관왕의 아성도 차례로 공략하게 될지 모른다면서 성급한 팬들은 지레짐작으로 열을 올리고 있다。

하나 徐라해서 호락호락 쓰러질리는 없다。아니 오히려 다음 黑차례인 제4국에서 감연히 분기하여 우선 2대2타이를 만들어놓고 최종한판마저 승리하여「名人의 사나이」의 진가를 보여줄지 모른다는 절대적기대를 거는 팬도 많은 것이다。

그것은 다음으로 기다려보기로하고 이번은 한말로해서 名人과도전자가 서로들、상대의능기를 예으로 들고나온 이색적인 싸움이었다。실리위주인 도전자가 세력을 펴고 세력위주인 名人이 실리를 취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가지 이채적인것은 포석단계에서 趙治勳9段이 名人位를 쟁취할때의 도전제5국과 비슷한 데가 여기저기에 생긴일이다。趙南哲8단이엮은「日本名人·棋聖戰」권을 보면 참고가 되겠지만 좌변黑29에서 변화를 피한것이 시행착오여서 黑41까지 제2선에서 간신히 살아서는 대실책。白은 불가불 굉장한외세작전을 전개하게되고 실제로 중앙에 광막한세가 형성되어 지극히 유망한형세였다。그러나 이에나관탓으로 白52이하 60이 안일했고 이어서 白68、90이과격하여 중앙을 黑101로 파괴당한데서 黑승이결정되었다。

그후 黑의삭감작전과 끝내기는 가위 고수의수법、白에 추호의 틈도주지 않았다。소비시간 白Ⅱ3·35 黑Ⅱ1·43。【一凡】

文化短信

統一문예작품 募集

民族統일中央協、학생·일반대상

민족통일중앙협의회(의장 千寬宇)는 청소년들에게 조국통일에의 이상과 의지를 심어주고 통일을 앞당기기위해 초·중·고등학생·근로청소년및 일반인을대상으로 통일문예작품을 공모한다。

주제는 초·중·고·근로청소년이▲우리가 원하는 평화통일▲통일에 이르는길▲북한청소년들에게 보내는 편지▲선생님에게서 들은 북한이야기▲통일된 우리조국。일반인이▲새시대의 평화통일정책▲북괴 연방제제의 저의▲북괴세습체비판▲통일된 조국의 像▲북한동포에게 보내는 편지로 이중하나를 택하면 된다。

원고분량은 국민학생이 2백자원고지 7매、중학생이 12매、고등학생·근로청소년및 일반인은 20매。

모집기간은 초·중·고등학생이 9월30일까지、근로청소년및 일반인이 10월10일까지로 초·중·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원고를 접수하고 근로청소년과 일반인은 각 시·도협의회에서 받는다。문의처 민족통일중앙협의회☎0393~4

여름하프교실 林明鎭교수가 주관 개최

하프를 배우는 여름음악학교가 8월1일~8일 용평주원호텔에서 열린다。하피스트 林明鎭씨(서울大강사)가 이끄는 여름하프교실은 올해2회째。

水泳초보자 講習 내일부터 2週間

서울YMCA永東文會는 여름철의 수상안전을위한 수영초보자강습을 27일부터 8월1일까지、8월3일부터 8일까지 각 1주일간 2회에 걸쳐실시한다。대상은 18세이상의 성인남녀 선착순 1백명。접수는 Y永東文會 안내실。(문의☎0961)

人間개발 시민講座 30일 鍾根堂회의실

사단법인 한국인간개발원은 30일하오6시30분 鍾根堂회의실(阿峴高架도로입구)에서「선택가능한 미래와 내일의 한국」이라는주제아래 인간개발 시민강좌를 개최한다。강사에는 金貞欽박사(高大교수·물리학)。회원에게는 개인혜산、학주、조율법등을 공부하게 된다。문의전화56-1092。

記者의 눈

게릴라雷雨 東京 기브업

작년여름에는 심한 더위와 한발이 밀어닥쳐 전세계를 괴롭히더니 올여름엔 홍수가 도처에서 발생하고있다。

7월 중순 중공의 大河 양자강이 76년이래 최대로 넘쳐흘러 3천여명이 목숨을 잃고 10여만명이 다쳤고 지난달에는 오스트리아의 다뉴브강이 1백30여년만의 대홍수로 범람、많은 피해를 냈다。

옆나라 일본에서도 7월22일 이날저녁 4시께부터 시작된 한바탕 물난리를 겪었다。

집중호우가 2시간동안 55mm의 강우량을 기록 東京시내에 쏟아져 도시기능은 완전히 마비됐다。

東京관상대 관측사상 3번째의 집중호우로 기록된 이번비는 벼락까지 동반、도로 가옥이 침수되고 전화가 두절되었으며 낙뢰로 인한 정전으로 東京시내 17만가구의 전등이 꺼졌고 2시간 동안 1천1백건의 화재신고가 소방국에 접수되었다。

新幹線、國鐵중앙선등 대부분의 전철과 지하철도 침수로 한때 운행을 중단해 퇴근길을 서두르던 시민 1백10만여명이 발이 묶였다。교통망도 갈기갈기 찢어진것이다。

일본신문들은「게릴라雷雨、東京大混亂」「순간雷雨、東京기브·업(Give up)」이라는제목을달고 잠간비에 항복해버린 水都東京의 허약함을 꼬집었다。

1주일 연속 계속 쏟아지는 대홍수야 天災地變이라 人力으로 막기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2시간의 호우로 두손 바짝 들어버린 東京의 물난리는 과밀도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 보인 것이다。

만일 그비가 서울에 쏟아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생각을 해본다。그래도 아직까지 서울에서는 폭우때문에 지하철이 운행중단된 적은 없으니 東京보다는 좀 나을것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지 어떨지 모르겠다。【朴永善기자·外信部】

…生 〈158〉

趙善作 禹慶熙畵

그림자 놀이 (67)

완전히 깨어나서도 안되고、그렇다고 또 깊이 잠들어서도 안되는 꿈 반 생시 반의 아슴아슴한 상태。그런상태로 그를 유도할 절호의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다고 나는 생각했다。나는 매우 긴장해서 그의 가슴 안으로 더욱 파고 들었다。내가 노린 것은 그런 상태로 그가 내몸을 건드리는 일이었다。그가 잠으로부터 완전히 깨어난뒤라면 나는 그에게 아무런희망도 걸수 없으리라는 생각이었으며、이 순간만이 내가 구원받을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매우 허덕이며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그의 잠옷 자락 속으로 두손을 가져가 그의 맨살을 만졌다。그가 뭐라고 중얼거렸다。그가 중얼거리는 동안 나는 가만히 있었다。그가 잠잠해지자 나는다시 그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가져갔다。견딜수 없었던지 그가 몸을 뒤척였고、나는 두손에 힘을 주어 그의몸을 붙잡았다。내팔의 힘이 그렇게 크게 작용한 것도 아니었는데、그는 마치 체념한듯 돌아눕는 일은 그만두었다。

한참동안 나는 그런 자세를 유지했다。유희는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느낌이었다。잠시 후、나는 그의 잠옷을 벗기기 시작했다。상의 단추를 밑에서부터 하나 하나 풀어 올라갔다。하의는 천으로 된 끈으로 매어져 있었는데、나는 그것의 매듭을 찾아 풀었다。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를 벗기는 보통의 어려움이 아니었다。우선 그와 나를 덮고있는 이불을 걷어야 했으며、프라이팬에 올려놓은 생선처럼 그를 뒤집지 않으면 안되었다。설사 그렇게 해서 그의 잠옷을 벗겼다 하더라도 잠옷에는 또 내의가 있었으며、그것의 상의는 머리께 뒤집어 씌우지 않고는 벗길수도 없었다。단추를 푼후 나는 그의 옷을 벗기는 일에서 손을 뗐다。

대신 나는 벗기지 않고도 접촉할수 있는 그의 맨살에 내 몸을 밀착시켰다。

그러면서 거머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생각을 나는얼핏 했다。떼래야 뗄수없는 밀착된 포옹。피부와 피부를 풀로 붙이고 혈관과 혈관을 잇는다… 하나의 몸에서 나온 두 개의 머리처럼 아무도 서로를 배반할수 없는 혈연(血緣)。당신은 이제 진실로 나를 피할수는 없어요。나는용액이 되어 당신의 모든 흡반(吸盤)을 통해 스며들 게예요。아침이 되면 당신은 당신의 안에 다른 한가지의 피로 여류하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당신의 외면(外面)이 아니에요。당신의 상상력속에서 거느리는、허구(虛構)속의 여자로 나는 만족한 거예요。내면의 여자따위의 표현을 쓴다면 그를 펴고 픽션의 연옥(煉獄)속으로 날아갔답니다。당신에게 편지를 쓸때만해도、유성에서만 해도 나는 현실속에 있었답니다。당신의 내연의 여자 따위가 되는게 내 꿈이었어요。그러나 이제는 달라요。당신이 꾸미는 픽션、당신과 내가 함께 꾸미는 허구의 나라가 내 땅이어요。거짓의 세계、그러나 진실로는 가장 진실한 픽션의 세계에서 당신은 나를내쫓을 수 없는 거예요。결코 쫓겨나지도 않을거에요。

張吉山 (1617)

黃晳暎作 崔然石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77)

김기가 말하였다。

『살주계는 노비들로 이루어진 당이었소。따라서 저들은 특별한 별호를 이루었소。마치 성균관 유생의 당이나、과천 내시들의 마을처럼 말이외다。더구나 사방에 때가 되면 철통같이 닫히는 사대문의 안에서 별호들끼리 모이고 흩어졌으니 무슨 기반이 될만한 세력이 이루어질 리가 없지。날마다 생업을 위주로 만나고 흩어지는 장삼이사(張三李四)들과는 애초에 별 관계였지요。비록 그와같은 노비들이 여러 세가와 부가에 많다고 하나 오히려 무슨 신비스런 소문이나 났지 실제의 일에는 소용이 없었오。내가 알기로는 그들은 계의 이름 그대로「양반 노주를 죽이고、재물을 빼앗는다」고 약조하였다는데、다만 그런 말로는 성내의 백성들을 납득시킬수가 없었을게요。특히 중길이란 사람은 오랫동안 도망하여 다니던 사람이라 하니、혼자서 숨어 다니다 보면 바라는 신통한생각이 많게 마련이외다。생각은 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니까』

김산이 경순에게 물었다。

『검계에서는 부자집을 털었다는데、그 뒤로 성내의 빈한한 백성들을 도와주는 일도 함께 했습니까?』

『못했던 것으로 압니다』

『뜻이 밝혀지지 않았으니 백성들은 저들이 다만 사람이나 죽이고 재물을 탐내는 서적으로 여겼을게아니요?』

여환이 답하였다。

『그런문제를 가지고 의논이 있었지요。실은 그무렵에 검계에서는 각 패거리마다 서로 갈라져 경쟁도되었던것은 아니라 특히 묘적사와 술부리에 근거를두었던 정원태 도사의 황거사같은 이들이 저희 무리의 세를 키워가는데 너무 힘을 기울였고、그들에 동참한 서강 모신이란 사람도 아무리 뜻이 있다하나 천래의 장사치인지라 장물의 이득에 먼저 마음이 앞섰던듯 합니다。』

김기가 말하였다。

『차라리 가장 노비들의 원성의 대상인 장예원의 관리나 옥사를 대상으로 하든지、아니면 계에 해를 끼칠 자에게 먼저 힘을보여 주는 것이 순서요。성내에 양반들을 위협하는 방문을붙였다고 하나 그만한 위협이라면 차라리 말없이 직접보여 주는게 낫소。방문은 격하고、다만 먹이 마르지도 않은 종이에 불과하니 계원들의 기만 돋워준 격이외다』

풍열이 곁에 놓인 죽비를 두드려서 설왕설래를 그치게 하였다。

『자、그러면 검계와 살주계의 활약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내 생각으로는 위한 점도 많은 것같은데…。』

막대근이 말하였다。

『죽음을 무릅쓰고 결행한 사람을 삼십여명이 좌우포청의 기찰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또한 거처가 한양 성내의 대가들이라 바로 조정의 코 아래까지 다고 사대문 밖에는 경기도의 사방 향리로 닿아 있는 검계의 근거가 있어 때에 따라서 외응과 내응을능주고 당기고 할 수가 있었읍니다。무엇보다도 종루 시전이며 이현 칠패 청파등의 난전과 마포 동막、용산 삼개、서강、그리고 광주의 송파와 양주의 다락원、등지의 저자는 서로 덤불처럼 얽혀 있어서 온갖 풍문과 소식을 주고 받는 곳이라 포청에서도 그 곳을 중시하고 있으이다。검계와 살주계가 완전히 잡히지않은 잔여의 세력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까닭인듯 싶소이다』

초 대 말 씀

삼가 아룁니다.
소생의 딸이 지난 5월30일 한국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8월4일 신랑과 함께 이곳에 도착케 되어 여러어른들을 모시고 조촐한 피로연을 갖고자 하오니 부디 왕림하시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통지는 생략합니다.)

일 시 : 1981년8월8일 토요일 하오1시 정각
장 소 : 오리엔탈·팔레스 529 BLOOR ST. W.

8월8일은 가정형편상 휴업하오니 고객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하우스

광고는 좋은 뉴스입니다.

광고는 메이커로 하여금 소비자를 위해 경쟁하게 합니다.
광고는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나오도록 합니다.
새로운 상품의 경쟁은 기술혁신을 낳게 하고 생활의 질적향상을 가져옵니다.
민주복지사회는 곧 광고가 좋은 뉴스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사회입니다.

한국일보사 THE KOREA TIMES LTD

왜 비싼가구를 삽니까

낡은 소파, 의자, 자동차 시트, 각종 가구등을, 다시 새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오래된 물건이라도 그냥 버리지 마시고 돈을 SAVE하는 길을 생각합시다.

가구재생 공장
TAYLOR'S QUALITY CHESTERFIELDS
536-1480
1009 DUPONT ST. TOR.
(DUPONT × DOVERCOURT)
한국일보사 옆건물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인

지렁이 잡이구함(유경험자에 한함)
최고가격 1000마리당 30달러
☎ : 255-0730

좋은 농장, 좋은 골프장
최고대우 1000마리당 25 - 30 달러
☎ : 532-3637 미스타 계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19~$25
☎ : 531-0474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 533-0910 피터

입주하셔서 애들(2명) 봐주실분
가게 : 1-723-8632(오후5시까지)
집 : 1-571-0725(오후5시이후)
(콜렉 · 컬로 전화하십시요) MRS. 홍

입주하셔서 애기 둘 봐 주실분
☎ : 425-6216
미세스 전

룸 · 메이트 구함 : 여성에 한함
베더스트×듀폰
☎ : 531-5200 미스. 유(오후6시이후 연락)

풀타임으로 그로서리 가게에서 일할 신체건강한 사람 구함
☎ : 690-6572

경험있는 재봉사 & 미싱기술자 구함 :
냉방장치및 식당 구비되어 있음
CO-ORDINATION DRESS LIMITED.
49 SPADINA AVE. 4th FLOOR
☎ : 367-1414

급 구

웨이트레스 약간명 모집 628 BLOOR ST. W.
☎ : 536-0290
한 국 관

①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우대 좋은장소 1000마리당 $35
②여름철 낚시미끼용 미모사, 지렁이 거머리등 세일.
LIGHTS밧데리
A & A METRO BAIT SHOP
630 QUEEN ST. E. (Queen × Broadview)
☎ : 463-4997

VENDING TECHNICIAN

Repair & maintain all types of Vending equipment, food service equipment etc.
Ability to read & understand electrical diagram essential.
Car necessary.
5years practical experience or equivalent in the field.

CNIB
☎ : 486-2570

매매및 양도

이주관계로 야마하 피아노급매 :
(3년사용) MRS. 서
☎ : 635-6273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가격 $59,900, 주매상 $5,600, 렌트 $1,100
리스4년+5년 옵션가능함 ☎ : 1-579-4507(WHITBY)

스토아 급매 :
주매상 $4,500, 권리금 3만3천
☎ : 423-9899

성업중인 가게급매 : 주매상 $5000, 리스5년+5년 옵션, 렌트 $400, 가격 $27000+스탁
☎ : 766-1990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작은가게를 원하시는 분 : 리스5년+5년옵션, 렌트 $650(2층 살림집있음)
☎ : 656-7753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
주매상 $2800, 렌트 $340, 리스5년, 2층에 2베드룸 : $275
☎ : 635-1038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1801 LAWRENCE AVE. E.
SCARB.

벡커매매
년매상 $300,000이상+로타리오
☎ : 783-1984

가게 급매 : 주매상 $4,500, 윗층에 3베드룸 있음
가장 적당한 OFFER자에게 양도코자 함
☎ : 531-1067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주매상 $5000 (Brimortone × Orton Park Dr.)
956 BRIMORTONE DR. SCARB

FIRE PIT햄버거 식당
주매상 8천불~만불, 가격27만불, 리스20년, 렌트 천7백불 현찰13만불 요함. 순이익8천불
☎ : 1-705-748-9722 피터보로
미스타 김 또는 미스타 리

그로서리가게및 건물급매 :
2층 벽돌건물이며 경쟁이 없고 장래성이 많은 좋은 위치에 있음.
모게지 1st. 9.5%, 2nd 12.5%
458 CALEDONIA RD. ☎ : 781-7080

콘도미니엄 매매
2 베드룸+큰 리빙룸및 부엌 $57,000(협의가능)
냉장고, 스토브, 디쉬워셔.
HWY 427×RATHBURN 오후6시이후
☎ : 622-7162 미스타 리

고급 BEDROOM SET급매 :
경대, 옷장, 2 NIGHT테불(QUEEN SIZE) 침대, G. E. 냉장고, 커텐, 전축등 급매
☎ : 769-4366(오후5시이후)

아파트단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4000, 리스 5년
☎ : 921-0034, 783-6464(오전10시~오후6시)

GROCERY STORE매매 :
토론토서 160km서북방에 있는 타운. STORE 2000sq. ft 2층에 방7개, 연매상 $20만, 요구액 $10만(건물포함)
1주일 57시간 개점(일요일 휴점)
☎ : 1-519-327-8368 MR. CHAE

성업중인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

하드웨어 비즈네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에게는 절호의 기회임, 좋은 장소 좋은 장래성, 좋은 가격임.
전화 : 741-4520
CALL JOE

사무실 렌트

가게렌트 : 부촌안에 있는 프라자 BURN KING, BAKERY DELICATESSEN 또는 COIN LAUNDRY 좋은 장소임 1600~2600 sq. ft.(싼렌트)
531 WEDGEWOOD DR. BURLINGTON
☎ : 844-3151, 844-0121

한국일보 안내광고란을 이용하세요.
533-2361-4
1025 Dupont St.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 이삿짐 피아노, 쿨러 나 라 운 수 ☎ : 630-6602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한방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꽃 집

〈제인 · 파크 꽃집〉
*각종 꽃종류, 조화, Plants취급. *몇꽃이, 생일, 결혼, 장례꽃 전문. *어디든지 배달가능합니다.
☎ : 769-0609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꽃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피 · 김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 미용실 미세스 · 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AM~8PM 매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 (B) 661-5667, (R) 742-9450 MR. 김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카펫 · 카텐

카펫 크리닝 ●카펫 ●소파 ●췌어 ●타일 ●하드우드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스트리핑 & 왁스)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식 당

大 生 園
찐빵, 각종만두, 두부탕, 닭튀김, 왕새우 볶음,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볶은밥, SEA FOOD.
월~목 11 : 30AM~1 : 00AM, 화 : CLOSE
금, 토 10 : 30AM~2 : 00AM, 일 2 : 00PM~12 : 00PM
☎ : 929-5048, 961-3539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 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에어콘 · 히팅 · 냉장고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 · 이인식)

에어콘 · 냉동 · 전기 · 히팅 · 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 · 히터 · 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B) 245-1978 (R) 248-6032 김용환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824(B), 226-5480(R) 변 달 원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액자, 오일페인팅(유화)판매 조 혜 숙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병원 감독자가 될 수 있는 코스를 택하고 싶으신분
시간당 $7, 일주일 코스
☎ : 961-1057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Can Am Coin Investments Ltd - 25년간 경력 -
금동전, 은동전을 최고가격으로 드립니다
329 QUEEN ST., WEST - TORONTO, CANADA - M5V 2A4
Telephone: (416) 366-3061 - 366-3062

流星의 賊 <141>

李炳注 作
李友範 畵

亡兆의 日月 ㉗

임금의 이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동인들은 굴(屈)하지 않았다. 보다도 임금 선조(宣祖)의 태도가 그러한 까닭에 더욱 동인들이 설치게 되었다고 말하는 편이 나을는지 모른다. 고양이를 범으로 만들어 놓은 셈이 되었으니 그들의 불안은 짐작할만 하다. 자칫하면 그들 생명의 위협이 이이의 거취(去就)에 의해 좌우될지도 몰랐다.

대사간 송응개(宋應漑)의 상소도 이러한 점의 표백이란것을 알수있다. 임금이 싫어하는줄을 알면서도 감행한 이 상소엔, 내 안죽으면 내가 죽는다는 절박감과 백번찍어 넘어지지 않는 나무 보았나 하는 집념이 엿보인다. 그런 까닭에 못할 소리가 없었다.

『이이는 본시 장삼 입고 머리 깎은 중이었읍니다. 그는 인륜(人倫)을 끊어버려 윤리상의 죄를 범한것입니다. 그가 중이 된 죄를 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선유(先儒)의 정론(定論)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으로 있다가 속세로 돌아와선 권문(權門)의 줄을 타고 처음 진사(進士)로 뽑혔을 땐 성균관의 여러 선배들이 문묘(文廟)에 참배함을 허락하지않았던 것인데 심통원(沈通源)이 그 아들 화(鏵)를 보내어 무마한 결과 비로소 참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후 심의 청직(淸職)에 올

어가게 되니 자연 이이는 심의 심복이 되어 그와 사생(死生)을 같이 하기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중자에 학문에 뜻을 둔다고 자칭하면서 글줄이나 짓는 것으로 문채(文彩)를 내어 박순과 같은 이른바 당시의 사류들과 인연을 맺어 비밀히 뱃속을 불하고 당시의 사조를 주도하였읍니다. 이준경(李浚慶) 정대년(鄭大年)은 선조의 연로한 신하이며, 갑난생은 을사사화를 겪은 곧은 신하로서 심의겸에게 붙지 않았으므로 이이로부터 배척을 받았으며, 조정의 명렬은 심의겸과 박순으로부터 나왔읍니다. 이이는 김인후 산야(山野)의 선비로서 자처하지만 심의겸과 순의 모주(謀主)가 되어 은근히 그들을 조종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심의겸은 이이와 성혼에게 있어서 잊기 어려운 존재가 된 것이며, 이이는 의겸에게 세력과 명성을 보탠 휘이 되었읍니다. 그런데도 이이는 감히 학자의 차림으로 산림(山林)에 출입하면서 미숙에 욕심이 없는 체하여 명성을 올리기 꾀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기에 이르렀읍니다. 뿐만 아니라 출처와 진퇴에 있어서 겨피하면 옛 성현의 말을 끌어와서 스스로 초연한 체 행세하기도 했읍니다…』

이 정도로 송응개의 지의를 충분하게 짐작할 수 없지 않는가. 그러나 상소의 내용은 갈수록 험악하게 된다.

『…심의겸이 청의(淸議…속 동인들의 의견)에 버림을 받았을 때 이이는 분한 마음을 품었으면서도 자게하지 않은 체하고 우선 시골로 물러나 있더니, 시세를 요리조리 보고난 후 이욕고 보합(保合)의 설을 들고나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읍니다. 상소들임에 있어선 의겸의 단처를 말하면서 김효원의 장처를 들기도 하여, 지극히 공정한 체 꾸며선 아래로는 제신(諸臣)들을 속이고, 위로는 전하를 속였읍니다. 그러나 이이의 마음 속을 국인(國人)들은 이미 훤히 보고 있읍니다…』

블론디 딘 · 영 作 本社特約 連載漫畵

"결혼기념품된만한것 뭐 없겠어요?" "돈을 얼마나쓸 생각이에 그러우?" "10달러 이내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플래스틱 결혼기념일이있다는 얘기는 못들었수다"

싸다고 소문 난 가나안
카텐
2890 LAKESHORE BLVD. W.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한국일보 무료배부
—우편파업기간중—